



디지털 콘텐츠가 활성화된 정보화 시대입니다. 도서관은 종이신문을 넘어 근현대 한국의 신문 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물론, 중요한 의미를 지닌 역사적 사료인 신문을 디지털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을 마무리하며, 고신문을 온라인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신문 아카이브를 들여다봅니다.



월간 《오늘의 도서관》은 누리집([www.nl.go.kr](http://www.nl.go.kr))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데이지(DAISY, 디지털음성도서) 서비스는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 및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vol.

318

2023. 12

# 오늘의 도서관



# 오늘의 도서관

vol.  
**318**  
2023. 12



표지 일러스트  
일러스트레이터 JINZAKA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고신문을 디지털화한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디지털 신문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도서관》 12월호에서는 뉴스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신문 아카이브를 만나봅니다.

월간 《오늘의 도서관》 제33권 제10호 통권 318호  
발행일 2023년 11월 30일 발간등록번호 11-1371029-000167-06  
발행인 국립중앙도서관장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편집위원 김성훈, 손효림, 이은경, 조선희, 배명희  
편집 이정화 [todaylibrary@korea.kr](mailto:todaylibrary@korea.kr)  
주소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02-590-6331 팩스 02-590-6329 누리집 [www.nl.go.kr](http://www.nl.go.kr)  
제호 강병인 디자인·제작 부문디자인

외부 필자에 의해 제공된 콘텐츠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오늘을 열다



**04 오늘의 칼럼**  
한국 근현대의 실록,  
신문 아카이브

**06 오늘 나의 도서관은**  
디지털 나침반  
'신문 아카이브'의 중요성

**10 일상을 펼치다**  
디지털화된  
고신문 활용하기

## 도서관을 만나다



**14 책 읽는 마음**  
추운 겨울, 독서로  
마음을 녹여봅니다

**18 문헌의 가치**  
조선의 농업지침서  
《농가집성(農家集成)》

**22 꿈을 이루는 도서관**  
역동적 미래를 선도하는 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26 도서관 여행자**  
과거의 증인이자 미래의 원천  
'튀르키예 이스탄불 라미도서관'

**30 도서관 트렌드**  
알파세대와 도서관

## 공감을 펼치다



**34 북데이터**  
중장년을 위한 책 읽기  
4050세대 독서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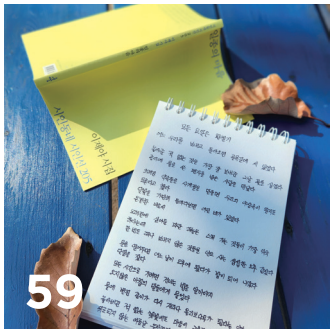
**36 오늘의 만남**  
동물복지 수의사의  
행복한 숲속 생활  
수의사 손서영

**40 K-인문학**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배척에서 포용으로

**44 고전 드라마**  
어떤 선물이 좋을까?  
오 헨리 《크리스마스의 선물》

**48 오감독서**  
수상한 연구소의 비밀실험  
그렌다 본드  
《기묘한 이야기: 최초의 의심》

## 함께 나누다



**52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56 국내외 도서관 소식**

**58 내 마음의 문장들**  
2023년 열 번째 필사  
강소천 <눈 내리는 밤>

**59 오늘의 사진관**  
따뜻한 겨울,  
나만의 도서관은 어디인가요?

《오늘의 도서관》 12월호를 SNS에서 만나보세요.

**블로그** [blog.naver.com/dibrary1004](http://blog.naver.com/dibrary1004)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nationallibraryofkorea](http://www.instagram.com/nationallibraryofkorea)  
**페이스북** [www.facebook.com/nationallibrary.of.korea](http://www.facebook.com/nationallibrary.of.korea)  
**유튜브** [www.youtube.com/nationallibraryofkorea](http://www.youtube.com/nationallibraryofkorea)



《오늘의 도서관》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 금지 -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러스트레이션 및 사진은 제외.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제도란 공공기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용허락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게 공개하고 활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www.kogil.or.kr](http://www.kogil.or.kr)



# 한국 근현대의 실록, 신문 아카이브

글 장신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학부 조교수

## 비장의 무기였던 축쇄판

선배들이 쓴 1990년대 이전의 한국 근대사 논문을 보면 묘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1920년대 연구가 많고 하나같이 동아일보를 사료로 인용하였다. 당시 일제시기에 발행된 신문을 보려면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해야 하는데 필름을 읽는 기계(리더기)가 설치된 도서관도 몇 되지 않아서 자리 경쟁도 심했다. 동아일보는 1950년대에 축쇄판을 발행했는데 30~40년이 지난 1980~1990년대에 구하기도 쉽지 않았지만 가격도 만만치 않았다. 어떻게 도서관이나 헌책방에서 짝을 맞춰 한 질을 구입하면 조선시대 연구자들이 조선왕조실록 여기저기 뽀듯함을 감출 수 없었다. 일제시기 동아일보는 1920년 4월 1일에 창간해서 1940년 8월 10일에 폐간했고, 축쇄판은 1920년부터 1928년까지만 발행되었다. 1920년대를 대상으로 동아일보를 이용한 연구가 물린 까닭이다.

## 디지털 아카이브의 시작

2000년 들어 한국사 연구에 전환점을 가져온 사건은 ‘한국 역사정보통합시스템(이하 역통)’의 개통이었다. 역통은 한국사 전 시기의 모든 중요한 사료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근대사와 관련해서도 여러 기관의 중요한 사료를 원문으로 볼 수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국사편찬위원회(이하 국편)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의 근대 신문 아카이브가 가장 쓸모 있었다. 동아일보와 시대일보, 중외일보, 조선중앙일보 등 일제시기의 중요 신문을 색인어를 통해 검색할 수 있었다. 마이크로필름을 출력한 지면을 스캔해서 화질이 아주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화면에서 글자 크기를 확대할 수 있었다. 축쇄판 시절 연구자의 사치품이었던 각종 돋보기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대한제국기의 신문들, 곧 독립신문이나 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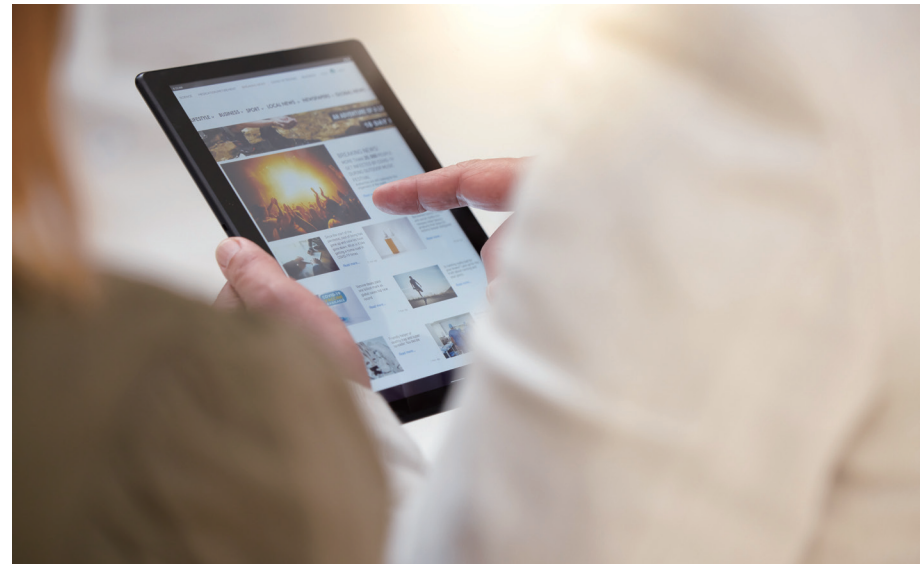
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고신문 서비스를 통해 볼 수 있었다. 주머니가 가난한 석박사 대학원생에게는 복음이었다. 보물처럼 취급되던 동아일보 축쇄판은 자리만 차지할 뿐 거저 줘도 아무도 찾지 않는 애물단지가 되었다.

## 기술의 진보와 OCR(광학문자인식)

역통이 시작된 지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네이버가 ‘뉴스 라이브러리’를 통해 OCR 기반의 동아일보 지면을 공개했다. 원본 지면을 스캔해서 화면이 예전보다 훨씬 선명했다. 한자를 못 읽는 독자를 위해 원문 외에 한자+한글 조합의 문장을 제공했다. 국편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되지 않는 기사를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는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같은 단어의 검색결과도 후자가 많았다. 예산 문제로 국편 데이터베이스는 고유명사 모두를 색인어로 넣지 못하고 부득이 광고도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연구자들이 역통에서 네이버로 이동했다. 그렇지만 네이버의 동아일보도 장점만큼 단점도 분명했다. 세로쓰기의 국한문 혼용체를 2000년대의 기술이 온전하게 재현하지 못했다. 교열의 한계도 뚜렷했다. 예를 들어 신채호(申采浩)를 검색하면 빠진 기사가 적지 않았다. 기사 제목으로 다시 검색하면 신채호와 함께 신판호가 뜬다. 이런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연구자들은 다시 국편과 네이버의 두 집 살림으로 돌아갔다. 어쨌든 실록의 지위는 동아일보의 독차지였다. 2020년에 창간 100주년기념사업으로 조선일보가 네이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말이다.

## 신문 아카이브의 끝판왕

실록 같다고 했지만 신문이 실록을 대신할 수는 없다. 조선시대의 《일성록》이나 《비변사등록》처럼 신문은 근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의 부산물처럼 여겨지는 신문 브라우징이나 디지털 컬렉션을 별도의 기획과 예산으로 특화시켜야 한다.

실록을 만드는 원천사료들이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조합에 매일신보가 더해졌다. 대한제국기의 항일언론으로 대한매일신보가 유명한데 일제가 비밀리에 이 신문을 사들여서 강점 직후에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로 만들었다. 대한제국기 신문 아카이브를 운영하던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매일신보를 소장한 (재)한국연구원의 협조를 얻어 디지털 아카이브로 만들었다. 시대일보 등의 다른 신문도 종로도서관의 원본으로 재구축했다. 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고신문 서비스와 기존에 구축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신문 아카이브를 통합해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가 출범했다.

신문 구성으로 볼 때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의 장점은 세 가지로 추릴 수 있다. 첫째, 폐간되거나 판권이 소멸된 해방 이전 한국어 신문을 망라하였다. 주인이 있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신문을 볼 수 있다. 신문 원본을 스캔해서 화질도 좋고, 결호가 있는 경우 다른 도서관 소장 신문을 확보하여 스캔해 채워 넣었다. 둘째, 총독부의 기관지 경성일보, 차칭 총독부의 야당지 조선신문, 조선 최대의 지역신문인 부산일보 등 일본어로 발행된 신문을 포함시켰다. 조선은 식민지였고 조선의 정치와 경제, 행정 등 모든 영역의 중심은 일본인이었다. 일본어 신문을 함께 보지 않고 식민지 조선을 온전히 재현할 수 없다. 셋째,

해방 후에 발간된 신문의 보고이다. 해방과 동시에 다양하다 못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신문사가 생겨났다. 서울의 일간지 외에 지방에서 발간된 신문들도 최대한 수집했다.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역사를 생생하게 전하는 기록의 보물창고다.

## 실록 같은 신문 아카이브 만들기

막대한 비용을 들인 국역 조선왕조실록은 처음에는 전공자에게만 판매하다가 이내 온라인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제공되었다. 사극의 소재로만 알던 실록의 국역과 공개로 예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콘텐츠의 세계가 열렸다. 드라마를 비롯해 영화, 소설, 웹툰, 광고까지 실록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가공·변주해서 새로운 콘텐츠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 신문 아카이브도 마찬가지다. 매일의 사건사고들이 창작자의 손길을 기다리는 중이다. 다만 전제가 있다. 현대인이 읽을 수 있게 실록을 국역했듯이 신문도 가공을 거쳐야 한다. 모든 기사를 번역할 수 없지만 한자와 일본어를 읽지 못하는 지금 세대를 위해 현대 한국어 번역이 필요하다. 또 지금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의 부산물처럼 여겨지는 신문 브라우징이나 디지털 컬렉션을 별도의 기획과 예산으로 특화시켜야 한다. 전문가 아닌 국민들이 읽고 상상하려면 이제는 발굴보다 활용에 노력을 쏟을 때다. ❷

## 디지털 나침반 ‘신문 아카이브’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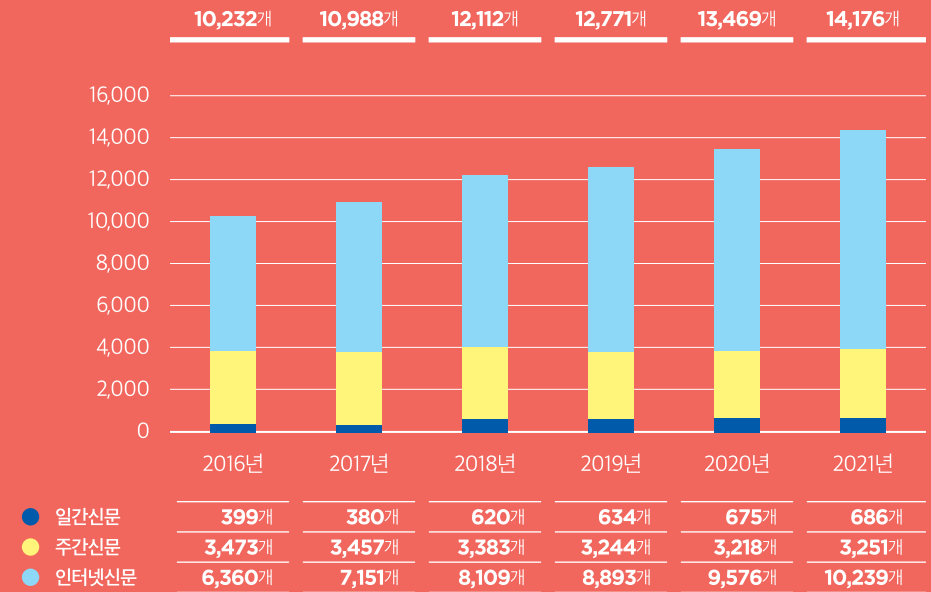
글, 사진 김규희 전 동아일보 부국장·도서관닷컴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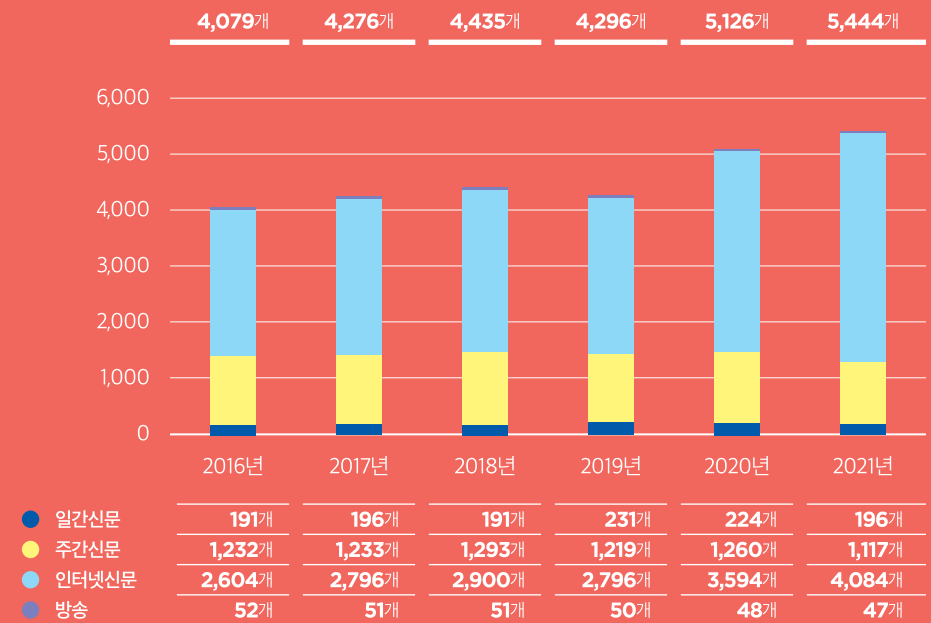
“신문사 조사부장을 지냈습니다.”

권위주의 시절, 총선에 출마한 한 후보가 선거 유세에서 던진 말이다. 그는 신문사의 꽃인 정치부장, 사회부장 등을 거쳤음에도 굳이 조사부장만을 언급했다. 부서 선배는 시골읍의 청중들에게 그 직함이 정보기관장처럼 들렸을 거라며 당시 일화를 우스갯소리로 전한 적이 있다. 조사부는 콘텐츠를 관리, 보급, 지원하는 군대로 말하면 병참부대다. 즉, 신문사의 모든 콘텐츠를 수집, 관리, 운용하는 것이 주 업무다. 조사부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일제 강점기에도 신문사 편집국 소속의 몇 개 안 되는 부서 중 하나였다.

### 신문산업 정기간행물 등록현황



### 언론산업 사업체 현황



방송산업의 경우 보도편성이 있는 사업자로 대상을 한정함(이하 같은 기준 적용)

자료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2022 한국 언론 통계 데이터북



### 종이신문 스크랩 주제별 특화 분류

자동화 이전까지는 신문자료의 활용은 오프라인 방식이었다. 조사부 기자들은 한 손에 가위를 들고 속달된 재단사처럼 그날의 신문을 스크랩했었다. 모든 기사들은 주제별로 특화된 분류 값이 매겨졌다. 이용자(주로 취재기자)들은 조사부를 방문해 석탄(은어)을 캐듯 자료를 찾았다. 하지만 원하는 기사를 꼭 집어내기란 망망대해에 어망을 던지는 꼴이었다. 이는 자료의 청구기호를 조사기자만 알고 있었으니 당연했다. 당시 조사기자의 수요곡선은 우상향했다.

한국언론연구원(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1990년 기사통합 DB서비스(KINDS, 현 BIG KINDS)를 개시하면서 기사 DB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다. 기사콘텐츠의 DB화는 신문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다. 여러 신문사들이 조직개편을 통해 DB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DB구축에 다투을 올렸다. 그렇지만 DB작업은 산 넘어 산이었고 방대한 양의 막대한 비용 투자를 감당하기 버거웠다.

인터넷 상용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신문사 누리집들이 속속 생겨났다. 기사를 실시간으로 작성하고 전송하는 온라인 방식이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신문 PDF 등 제작 시스템의 전산화도 병행됐다. 일부 신문사는 네이버와 프로젝트 협업을 통해 기사 DB ‘뉴스 라이브러리’를 진행했다. 대부분 신문사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뉴스 콘텐츠를 수집·편집·생성 등을 자동화하는 통합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를 완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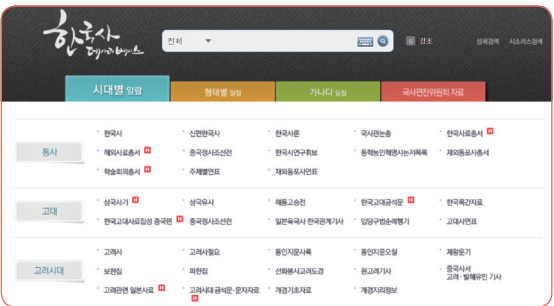
신문사에서 ‘아카이브(Archive)’라는 용어가 일반화된 것은 DB가 활성화되고 나서다. 우리의 일상은 보고 듣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출처는 뉴스(News)다. 뉴스는 곳곳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일들을 전해준다. 날 것의 정보들은 필터링을 거쳐 신문이라는 플랫폼에 탑재돼 독자들에게 전달된다. 신문은 정보 전달이라는 기능을 넘어선다. 시대의 서사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신문 아카이브가 역사적 사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이유다.

정보화고속도로는 신문에도 큰 변화와 혁신을 가져왔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뉴스가 디지털이라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디지털 신문 아카이브로 재탄생했다. 디지털 신문 아카이브는 기관에 따라 특징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한국학중앙연구원(‘근현대 신문 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 데이터베이스’)는 고(古)신문 아카이브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는 반면, 일반 도서관은 실시간 뉴스에 집중하고 있다.

디지털 신문 아카이브는 뉴스의 활용 가치를 배가시켰다. 빅데이터를 통해 사용자 목적에 맞는 검색 결과들이 생성되고, 큐레이션(Curation) 등 콘텐츠들의 입체적 조합으로 니즈(Needs) 중심의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100살이 넘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은 레거시(Legacy) 콘텐츠를 활용해 ‘동아디지털아카이브’, ‘아카이브조선’ 등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하고 있다. 2000년 개관한 국내 유일의 신문박물관(프레스يوم·PRESSEUM)은 동아일보를 비롯해 근현대 한국의 신문 역사를 조망하고, 세계의 신문 60여 종을 전시하고 있다.

‘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 전략은 신문사의 모토가 된 지 오래다. 많은 신문사들이 수익성 악화 등과 맞물려 종이신문에서 디지털 신문으로의 성공적 전환법을 모색하고 있다. 디지털 신문의 가파른 상승은 종이신문의 하강과 직결된다. 온라인뉴스로 승부를 걸어 성공한 사례도 꽤 있다. 미국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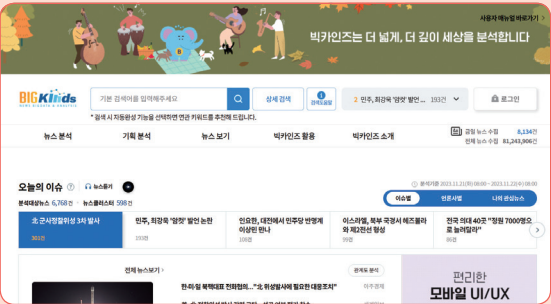
한국학중앙연구원 ‘근현대 신문 데이터베이스’



동아일보 ‘동아디지털아카이브’



조선일보 ‘아카이브조선’



한국언론진흥재단 ‘BIG KINDS’

대표적인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온라인 저널리즘 혁신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온라인 유료 구독자가 약 900만 명(2022년 기준)에 이른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과감하게 종이신문을 포기하고 디지털 전환에 성공해 2016년 이후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온라인뉴스의 독점적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주변에 종이신문 본다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그러나 한국 언론계 특성상 온라인뉴스의 유료화는 아직 성공적이지 못한 듯하다.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는 법. 한때 전 세계 온라인 방문자 넘버원을 기록했던 미국의 온라인 미디어 ‘버즈피드

(BuzzFeed)’는 지난 4월 뉴스 부문 사업을 접었다. 온라인 발행을 시작한 지 12년 만의 일이다.

### 디지털 퍼스트 시대, 자료 가치 재설계

우리는 공기의 중요성을 잊고 지낸다. 신문 아카이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다. 정보의 바다로 쏟아내는 뉴스를 매일 접하면서도 신문 아카이브의 존재나 중요성을 지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광속 정보화시대에 신문 아카이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그것만큼 바보스러운 일은 없다. 수십 년, 수백 년치 신문 아카이브가 연구자 등 소수 이용자에게만 머물러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가치에 비해 시장 가격이 낮게 평가받고 있다.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 신문 아카이브의 가치와 가격을 높일 때다.

신문 아카이브의 가치를 최고로 만드는 것은 관련 종사자들의 책무다. 아카이브의 전략적 관점은 전문가적 식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 사람은 기계과 달리 공감 이해력을 갖고 있다. ‘기록의 홍수시대’에 신문 아카이브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활용의 성패가 좌우된다. 맹탕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면 사람 투자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자료 분석을 통해 가치를 설계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새천년을 앞둔 1999년, ‘종이신문 몰락설’이 종말론처럼 두들겼다. 2010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등장할 때도 유행병처럼 ‘종이신문 몰락설’이 회자됐다. 10년이 넘게 흐른 지금, 뉴스 소비의 양태가 디지털 중심으로 바뀌기는 했어도 종이신문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물론 종이신문의 하락세는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나 뉴스의 근간이 되는 ‘신문’이라는 땅이 있어야 기둥을 세우고 신문 아카이브라는 멋진 집을 지을 수 있다. 신문 아카이브는 지혜를 주고 통찰력을 갖게 한다. 구슬이 아무리 많아도 꿰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 신문 아카이브가 디지털 환경의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 누구든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하자. 🌊

구슬이 아무리 많아도 꿰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  
신문 아카이브가 디지털 환경의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 누구든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하자.



# 디지털화된 고신문 활용하기

글 이주영(부운디자인)

고신문은 구한말, 미군정기, 한국전쟁 등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근현대 정치·경제·사회·문화 관련 역사를 담고 있는 1차 사료로써 활용 가치가 매우 많은 자료다. 디지털화된 고신문은 원천 데이터의 공개가 가능한 공공데이터로 현재 근현대사 연구, 교육, 출판, 영화제작,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신규 비즈니스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오늘의 도서관》 12월호에서는 살아있는 근현대를 만날 수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와 네이버가 제공하는 ‘뉴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국립중앙도서관

###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www.nl.go.kr/newspaper)를 통해 고신문 디지털화 자료를 영구 보존하고 있다. 이용자가 쉽게 신문별, 일자별, 기사 검색을 통하여 신문 원문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바로가기



**검색 조건** 키워드에 대해 AND, OR, NOT 조건을 사용해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키워드** 찾고자 하는 기사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기사 기고 수산시험장 알람 논설

AND AND AND

**신문 검색** 기사 제목의 문장 전체 또는 일부를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신문 검색은 AND 조건이나 문장 검색이 가능한 ‘키워드 검색’과 신문을 선택한 후 캘린더를 이용해 검색하는 ‘발행일 검색’, 그리고 주제·유형·소재·인명·단체·장소 등 특정 분야로 검색할 수 있는 ‘신문 브라우징’을 서비스한다.



키워드 검색 결과를 연대기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연대를 선택하여 해당 연대의 기사 건수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과 연대기 형태의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신문해제 선택** 신문 선택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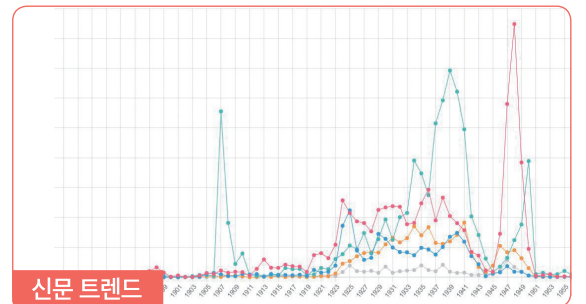
가정신문 경원일보 경남일보 경성일보 고려시보 공립일보 공업신문  
국민신문 국제신문 국제일보 군산신문

남선경제신문 남선신문 남조선인보 노학인민 농민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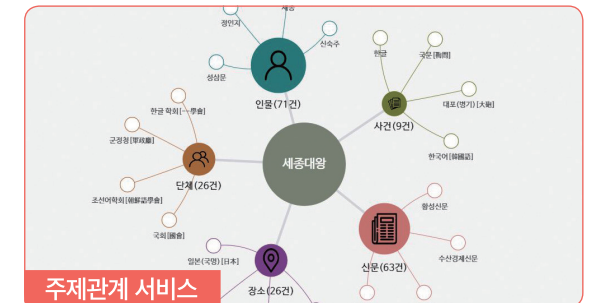
대공일보 대구시보 대구일일신문 대동신문 대중신문 대중일보 대한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여문) 대한일보 독립신문 독립신문(서재필) 독립신문(영문) 독립신문

**신문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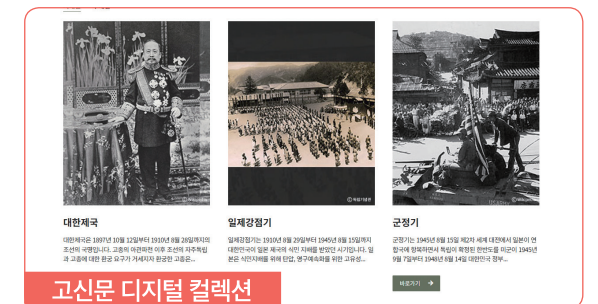
구축한 고신문 99종에 대한 간략 소개(해제)가 들어 있다. 가나다 순으로 나열되어 있으며 해당 신문을 클릭하면 신문별로 보관 중인 기사 건수 및 전체 신문에서의 비율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검색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 건수를 연도별 그래프로 제공해 기사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 5개의 키워드까지 다중검색이 가능하며, 검색 결과에 대한 이미지나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검색한 키워드와 함께 관련된 주제어를 인물, 사건, 장소, 단체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네트워크 관계도 형태로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고신문에 대한 시대별, 주제별 디지털 컬렉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컬렉션은 해당 주제에 대한 신문 기사가 추가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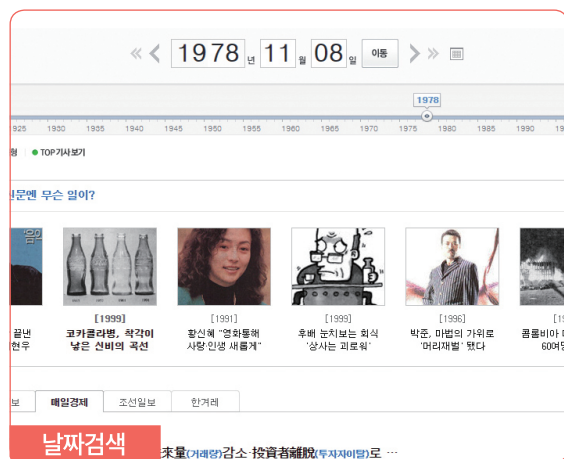


## 네이버

## 뉴스 라이브러리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https://newslibrary.naver.com>)는 2009년 4월 30일부터 네이버가 제공하는 신문 아카이브 서비스이다. 1920년 3월 5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요 일간지 5종(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한겨레)의 이미지와 텍스트 DB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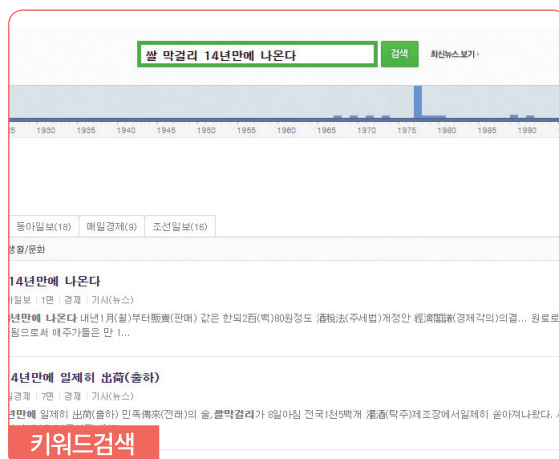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바로가기



원하는 날짜를 검색하여 해당 날짜에 나온 고신문을 확인할 수 있다. 한겨레의 경우 창간일인 1988년 5월 15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신문을 클릭하면 새창으로 텍스트 원문을 볼 수 있으며 한글변환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좀 더 주제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사를 확인하고 싶다면 상세검색을 이용하면 된다. 언론사와 지면, 섹션, 유형, 범위 등을 원하는 범위로 지정하여 검색 가능하며 검색 결과는 이미 지형, 요약형, 제목형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해 기사를 검색할 수 있다. 하단에는 검색 결과 건수와 함께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겨레 신문 탭이 구분되어 있다. 세부 카테고리로는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연예, 스포츠, 광고 등이 있다.



고신문을 다음에도 확인하거나 활용하고 싶다면 마이크로랩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날짜검색, 키워드검색, 상세검색 등을 통해 접한 고신문 중 원하는 기사를 클릭하여 스크랩할 수 있다. 스크랩된 기사들은 마이크로랩의 목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도서관을 만나다



만남의

도서관

## 14 책 읽는 마음

추운 겨울, 독서로  
마음을 녹여봅니다

## 18 문헌의 가치

조선의 농업지침서  
《농가집성(農家集成)》

## 26 도서관 여행자

과거의 증인이자 미래의 원천  
'튀르키예 이스탄불 라미도서관'

## 22 꿈을 이루는 도서관

역동적 미래를 선도하는 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 30 도서관 트렌드

알파세대와 도서관

# 추운 겨울, 독서로 마음을 녹여봅니다

글 국립중앙도서관 사진 각 출판사

**국내문학**

**연수**

장류진 지음 | 창비 | 2023

**국외문학**

**베르베르 씨, 오늘은 뭘 쓰세요?**

베르나르 베르베르 지음 | 전미연 옮김 | 열린책들 | 2023

**인문예술**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루퍼트 스파이라 지음 | 김주환 옮김 | 퍼블리온 | 2023

**인문예술**

**처음 읽는 서양 미술사**

이케가미 히데히로 지음 | 박현지 옮김 | 탐나는책 | 2023

**인문예술**

**이토록 클래식이 끌리는 순간**

최지환 지음 | 북라이프 | 2023

**인문예술**

**서평가의 독서법**

미치코 가쿠타니 지음 | 김형선 옮김 | 돌베개 | 2023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49쪽)

## 사서의 추천 글

국내외 안팎으로 우울한 뉴스가 연신 들려온다. 이럴 때 유쾌한 소설집을 만나보면 어떨까?

장류진의 《연수》는 여섯 편의 전혀 다른 이야기 속 개성 넘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다.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가엾기도 하며 동질감을 느끼게 하기도 하는 각양각색의 등장인물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인생을 꽤 수월하게 살았어도 실패한 경험이 있는 인물들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 초보자이거나 새로운 세계에 진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신입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다. 예를 들어 표제작인 〈연수〉는 굴곡 없는 삶을 살며 제 일에도 유능한 ‘주연’이 유일하게 낙방한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연수를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다. 그렇지만 ‘주연’은 일이라는 게 늘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은 아니며,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항상 합당한 대가로 귀결되는 것은 아님을 깨닫는다. 초보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에서 아이처럼 실수하고 두려움을 느끼며 의기소침해 있는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소설 속 인물들은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서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내일을 향해 또다시 걸음을 내딛는다. 작가는 이들을 통해 ‘무언가 해내고 싶은 마음, 되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누구에게라도 손을 내밀어도 움을 요청하거나, 지지 말고 소중한 그것을 지켜내라고 말한다.

**저자 소개** 장류진 ‘창비신인소설상’을 받으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일의 기쁨과 슬픔》, 장편소설 《달까지 가자》를 썼다. ‘젊은 작가상’, ‘심훈문학대상’을 수상했다.

“글을 쓸 힘이 있는 한, 내 책을 읽어 줄 독자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알츠하이머병에 걸리지 않는 한 계속 쓸 생각이다. 내 삶의 소설이 결말에 이르러 이 책의 첫 문장처럼 <다 끝났어, 넌 죽은 목숨이야> 하고 끝을 알려 줄 때까지.”(470쪽)

## 사서의 추천 글

천재적 작가는 어떻게 글을 쓸까? 특히, 한국이 사랑하는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독창적인 상상력의 원천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이 책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첫 자전적 에세이집이다. 열등생 취급을 받았던 어린 시절, 이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써 상상의 세계로 도피하곤 했다는 고백이 눈길을 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와 무심코 읽었던 책의 한 구절, 살아가며 만난 다양한 캐릭터와 사건, 감정 등. 작가는 사소한 경험들마저 놓치지 않고 글쓰기의 자양분으로 녹여낸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작가의 글쓰기 루틴이다. 어렸을 적부터 글쓰기 감각을 위해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글을 썼으며 완성된 창작물도 다시 마음에 들 때까지 수차례 거쳐 고쳐 쓰곤 했는데, 이러한 습관은 그가 성공한 작가의 반열에 오른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천재 작가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저자 소개** 베르나르 베르베르(Bernard Werber) 과학잡지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해오다 1991년 그가 12년간 17차례나 고쳐 쓴 《개미》를 출간하며 작가로 등단한 프랑스 소설가다. 이후, 《타나토노트》, 《신》, 《뇌》, 《나무》, 《파피용》,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등의 책을 35개 언어로 출판하며 전 세계 독자를 사로잡은 베스트셀러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명상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상은 스스로에게 돌아가기, 또는 스스로를 쉬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118쪽)

## 사서의 추천 글

소란스러운 뉴스,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은 때때로 명상에 끌린다. 그런데 명상이란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하는 것일까? 보통 명상이라고 하면 특별한 목적과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책은 명상의 목적이 심오한 깨달음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여 자기본연의 모습을 찾는 것이 진정한 명상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내용이지만 저자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만나게 되는 것들을 비유로 들어 명상의 본질을 비교적 평이하게 설명하고 있다. 일상에서 심리적 괴로움에 지쳤다면 이 책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은 존재로서의 ‘나’를 알아차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명상이란 결국 나 자신의 본질을 향한 의지일 테니까.

**저자 소개** 루퍼트 스파이라(Rupert Spira) 어릴 때부터 실체의 본질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열일곱 살에 명상을 배웠고, 지난 20여 년간 프랑스 롤스 박사와 인도 북부의 상카라차리아인 산타난다 시라스 와티의 지도 아래 고전적인 아드바이타 베단타 전통의 명상에 대한 연구와 수행을 해왔다.

“미술 작품은 이런 인류가 지나온 역사를 ‘보기’ 위한 문이자 그 열쇠가 되어주기도 한다. 거기서 배울 점은 많다.”(7쪽)

## 사서의 추천 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스테인드글라스가 건물 외벽 장식 기능뿐만 아니라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서의 내용을 전달하는 길잡이 역할을 했다? 원서의 제목인 ‘대학 4년간의 서양 미술사를 10시간 안에 배우다’에서 알 수 있듯 서양 미술사 입문자들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5부 및 8개 세부 테마로 나누어 ‘미술사 개괄, 명화 보는 방법, 서양 미술 기법과 장르, 시대별 미술사, 미술작품 속 알레고리·성서·신화’를 설명한다. 각 왼쪽 페이지에는 글로 개념설명을 하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왼쪽 페이지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다소 딱딱할 수 있는 개념들을 쉽게 풀어내고 있으며 관련한 흥미로운 내용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2024년 새해를 맞아 이 책과 함께 미술관 산책을 하며 ‘미술작품 감상’이라는 새로운 취미를 갖는다는 의지와 각오를 다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저자 소개** 이케가미 히데히로(池上英洋) 도쿄예술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서양미술사 및 문화를 전공하였다. 현재 도쿄조형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일본문예가협회 회원이자 미술사가다. 주요 저서로 《쉽게 읽는 서양미술사》, 《다시 읽는 서양미술사》, 《예술가가 사랑한 집》 등이 있다.

“음악을 단순히 귀에 들어오는 소리로만 듣는 것은 음악을 너무 한정적으로 만나는 일입니다. 음악은 파장의 에너지죠. 이 파장 에너지를 귀에 바로 보내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브람스 교향곡 1번처럼 강력한 에너지를 표출하는 음악은 오디오의 볼륨을 높여서 에너지의 양을 극대화해 온몸으로 들어야만 곡이 가진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100쪽)

## 사서의 추천 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은 또한 새해를 위한 의지와 각오를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오는 새해엔 클래식을 들으며 한 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보면 어떨까? 어떤 곡부터 시작할지 어디서 들을지 고민하지 말고, 이 책으로 시작해 보자. 작가는 클래식 입문자와 애호가들이 사랑하는 불멸의 클래식 28곡을 선정하여 에피소드나 작곡가 소개뿐 아니라, 미술, 건축, 문학, 영화, 와인 등 여러 다양한 분야를 접목해 음악을 듣는 법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같은 곡을 다르게 해석한 연주를 비교, 설명하여 같은 곡이라도 해석에 따라 무한히 변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해당 곡들을 따로 찾을 필요 없이 큐알 코드를 통해 바로 감상할 수 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음악을 감상하는 방법이 듣는 것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클래식 음악은 온몸으로 느낄 수 있고 그림처럼 볼 수 있고 이야기처럼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음악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한다.

**저자 소개** 최지환 45년간 클래식 음악과 함께한 클래식 음반 컬렉터 겸 칼럼니스트. 건축가, 디자이너 등 예술가 대상 ‘음악이 들리는 강의’를 10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스트라디온 공연장의 클래식 공연을 기획하며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진행한 바 있다. 최근 클래식 공연기획 커뮤니티 ‘M.Ora’의 음악 감독을 맡아 한국의 클래식 공연 문화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여기서 나는 비평가보다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책을 소개하려 한다… 이 책들은 그야말로 애당초 우리가 왜 책읽기에 빠져들었는지 그 이유를 상기시켜주기 때문이다.”(22쪽)

## 사서의 추천 글

새해는 항상 결심과 의지로 시작된다. 혼한 결심 중의 하나가 바로 독서다.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책이 있다. 독서리스트를 만드는 것은 다양한 작가와 장르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취향과 관심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저점의 베스트셀러 목록, 지인들의 추천, 가끔은 무작위로 선택한 책이 의외로 감동적인 경우도 있지만, 기대했던 것과 달리 실망스러운 책을 만날 수도 있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이라면 책 읽기를 직업으로 삼은 서평가의 서재를 참고해보자. 영어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서평가인 미치코 가쿠타니가 이 시대를 읽는 99가지 로드맵을 우리와 공유한다. 책의 부제가 ‘분열과 고립의 시대의 책임가’인 만큼, 작가는 고전부터 현대 소설, 회고록, 기술·정치·문화 분야 논픽션 등 다양한 장르와 주제의 책 100여 권을 간결하고 흥미롭게 소개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독서 경험과 지식을 제공한다. 저자가 왜 그 책들을 읽었고, 어떤 인상과 영감을 받았는지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자신만의 독서 기준과 방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앤 후드의 소설 《내 인생 최고의 책》의 주인공처럼, 새해에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책’을 찾는 여정을 떠나보자!

**저자 소개** 미치코 가쿠타니(Michiko Kakutani) 1998년 비평 분야 풀리처상을 수상한 문학비평가이자 서평가로 《뉴욕타임스》에서 서평을 담당했다. ‘영어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서평가’로 알려져 있으며, 2017년에는 책을 주제로 퇴임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과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책은 가쿠타니의 세 번째 책으로, 본격적인 서평의 세계로 독자들을 초대한다.





**사회과학**

**모든 꽃이 봄에 피지는 않는다**


이다지 지음 | 서삼독 | 2023



**사회과학**

**삶을 향한 완벽한 몰입**

조슈아 베커 지음 | 이현주 옮김 | 와이즈앱 | 2023



**사회과학**

**플레이밍 사회**

이토 마사야키 지음 | 유태선 옮김 | 북바이북 | 2023



**사회과학**

**지금 우리가 바꾼다**

일로나 코글린, 마렉 로데 지음 | 정세연 옮김 | 슬로비 | 2023



**자연과학**

**고기는 절반만 먹었습니다**

브라이언 케이트먼 지음 | 김광수 옮김 | 애플북스 | 2023



**자연과학**

**운동의 진실과 기쁨**

강윤규 지음 | 리즈앤북 | 2023

“인생의 잠재력이 언제 발현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역사 속에도 ‘나의 계절’은 반드시 오거든요.”(20쪽)

#### 사서의 추천 글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걸음만 하는 것 같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의지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찾아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안정적 직장을 두 번이나 떠나 본 적이 있는 저자 역시 미래에 대한 불안감,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부정적인 생각, 나를 갇아먹는 인간관계로 인한 고민을 잘 알고 있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아낌없는 조언과 위로로 건넨다. 아직 발휘되지 않은 잠재력으로 움츠러들 필요도, 실패가 두려워 주저앉을 필요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모든 꽃이 봄에 피는 것은 아니니 남들과 비교하며 초조해하지 않고 몸으로 부딪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고 조언한다. 성공을 위한 일상 루틴 만들기, 실행력 강화 방법 등 구체적인 실천 방식까지 조목조목 알려주며 단 한 번뿐인 나만의 인생을 살아내라고 응원하고 있다.

다가오는 새해, 새로운 꿈이나 아직 포기하지 못한 꿈이 있다면 이 책을 계기 삼아 의지의 꽃을 피워 당신의 찬란한 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저자 소개 이다지

현 메가스터디 사회탐구 영역 및 한국사 영역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 후 인천하늘고 교사로 근무했다. 'EBS 사회탐구 영역 대상'을 수상했고 EBS 한국사 교재 검토 및 동아시아사 교과서를 집필했다. 메가스터디 일타강사, 연고대생이 뽑은 스타강사 1위, 후배에게 추천하는 멘토 1위 등 화려한 수식어를 갖고 있으나 역사 강의를 넘어 꿈과 인생에 대한 명강의로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모든 사람이 지구를 구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엄마를 돕기 위해 설거지를 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117쪽)

#### 사서의 추천 글

주말을 고대하며 평일을 허비하거나 여가 활동이 인생의 전부라 믿는 사람, 집안의 쌓인 물건들과 일거리들로 여유가 없거나 안락한 삶을 위해 돈이 더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 남들의 칭찬에 목매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이 책을 읽어볼 만하다.

개인의 행복과 성취를 중요시하는 현대 사회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 책에서 저자는 한 번뿐인 삶을 의미 있고 후회 없이 살기 위해 여덟 가지 다짐을 하고 이를 의지를 갖고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 ‘과거의 실수를 받아들이 것 이다’, ‘소유욕을 내려놓을 것이다’, ‘스마트기기에 잠식당하지 않을 것이다’와 같은 다짐은 어쩌면 지나치게 윤리적이거나 낙관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다짐 속에 관성으로 반복되는 거기서부터, 자신을 향한 의지에서, 시작해보자. 종착에는 저자가 약속한 것처럼 자신만의 의미를 위해 완벽하게 몰입하는 삶에 깊숙이 빠져들게 될 것이다.

#### 저자 소개 조슈아 베커(Joshua Becker)

전 세계 미니멀리즘 운동의 전설적 인물 조슈아 베커는 블로그 ‘작은 삶을 사는 법(Becoming Minimalist)’을 운영하며 몰입하는 삶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포브스>의 특별기고 작가이며 <타임>,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칼럼을 쓰고 지은 책으로는 <작은 삶을 권하다>와 <미니멀리스트 홈>, <단순하게 사는 법> 등이 있다.

“오늘날에는 많은 문제가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전모를 파악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셜 미디어가 보급됨에 따라 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상황을 바라보는 일은 극히 편리해졌다.”(103쪽)

#### 사서의 추천 글

우리는 지금, 다양한 미디어 속 수많은 목소리들이 불타오르는 이른바 플레이밍 사회를 살고 있다.

‘플레이밍(flaming 炎上) 현상’이란,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도 넘은 비방’의 의미로 2000년대 초 등장한 단어이다. 이후 소셜미디어의 보급과 함께 확대되었고 오늘날에는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저자는 6개의 장을 통해 플레이밍이 발생하는 사회적 구조와 사례를 분석하고,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논리와 모순 등을 살펴본다.

일본인 저자가 제시하는 일부 사례와 정치적 배경은 일본에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한 사회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한 후 이에 대한 격렬한 반응이 인터넷에서 나타나는 플레이밍 현상은 어느 나라에서도 흔히 일어난다. 특히, 해시태그를 통해 집단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국내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플레이밍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저자는 발생한 사건 자체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다만 객관적 거리를 두고 이러한 사건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플레이밍 현상을 여러 관점에서 분석하며 독자에게 생각할 여지를 준다.

그동안 다양한 미디어 속 화염에 휩쓸리기 바빴지만, 앞으로는 주제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 저자 소개 이토 마사야키(東野圭吾)

2015년부터 세이케이대학교 문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플레이싱>, <데모의 미디어론> 등이 있다.

“좋은 대안은 참신한 아이디어가 아닌 자연과 조응하던 과거 방식에서 나온다는 것이다.”(113쪽)

#### 사서의 추천 글

하루하루 달라져 가는 우리의 지구를 위해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독일에서 생태적 삶을 살고 있는 저자들은 지구와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은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라고 말하며 구체적 실천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먹을거리, 입을 거리, 일, 돈, 살림, 수리, 주거, 이웃, 동물, 이동 수단, 여행 등 16가지 일상 영역에서 작은 행동을 하나하나 시작하자고 조언한다. 생태적 삶으로 전환하면서 저자들이 느끼고 실천했던 것들을 공유하는 이 책에서 특히 소비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편리함만을 생각하는 소비가 아니라 나와 우리, 나아가 사회를 의식하는 소비를 한다면 한 명 한 명의 작은 변화가 사회를 바꾸는 기적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지구 환경을 위한 의지와 열정을 갖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 고민하고 있다면 이 책을 통해 지금 바로 행동해 보는 건 어떨까.

#### 저자 소개 일로나 코글린(Ilona Koglin),

마렉 로데(Marek Rohde)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다가 현대 소비 사회가 초래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삶의 생태적 전환을 시도하였다. 예코 힌스터 부부로 유명하다. 2011년 미디어 회사 우피 커넥션즈(Whoopee Connections)를 세워 팟캐스트·유튜브·단행본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생태적 전환, 대안경제, 탈성장, 집단지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강연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입양한 반려견과 함께 독일 함부르크의 공동체 주택에서 살며 생태적 삶의 지혜를 나누고 있다.

“고기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으며, 이것을 즉시 실천하라는 말을 듣는 것조차 즐겁지 않다. 지속 가능하고 건강하며 인도적인 미래의 열쇠는 우리 식단에서 육류를 완전히 없애기보다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하는 일일 것이다.”(271쪽)

#### 사서의 추천 글

고기를 소비하지 않아야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데 이게 맞는 말일까? 왜 하필 육류일까?

저자는 이 책에서 인간의 육식은 기후를 변화시키고, 생물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동물 복지를 침해한다고 여러 사례를 통해 조목조목 밝히면서 육식의 환경적, 윤리적 문제점을 지적한다. 하지만 저자가 제안하는 것은 전적인 채식보다는 육류 소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리듀스테리안’이다. 저자는 육류 소비의 문제를 깨닫고 난 후 채식주의자가 될 것이라 선언했지만 눈앞에 고기가 보이거나 냄새를 맡으면 본능적으로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고백한다. 육류 소비를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속 가능하고 보다 윤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찾게 되었다. 리듀스테리안이 되어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현재 급격히 변하고 있는 환경과 인간의 건강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책을 읽고 난 후 육류 소비를 줄이는 의지적 실천에 동참해보면 어떨까? 고기를 절반만 먹는 것으로도 지구와 동물, 인류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저자 소개 브라이언 케이트먼(Brian Kateman)

프리랜서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극단적 채식보다는 육식 소비를 조금씩 줄이면서 자신의 건강과 환경까지 지킨다는 목표로 리듀스테리안 재단을 설립한다. 2021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육식과 채식 사이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육식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건강한 세상을 만들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언제든지 생활 현장에서 실천 가능하여야 한다. 언제-어디서나-무료로, 도구-매트-어려움 없이 쉬운 동작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루에 5차례 10분씩, 50번 머리부터 발끝까지 11가지 스트레칭 방법.”(92~94쪽)

#### 사서의 추천 글

미디어에 넘쳐나는 건강 프로그램과 보조 식품 광고를 보면 솔깃하다가도 정작 나에게 효과가 있는지 의심되기도 한다. 마음먹고 시작했아가도 작심삼일 되는 것도 예사일이다. 이럴 때 재활의학 전문의와 상담한다고 생각하고 <운동의 진실과 기쁨>을 펼쳐보면 어떨까? 저자의 처방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지 않을까?

이 책은 전문 운동서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운동들이 어떻게 몸을 건강하게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 과학적인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풀어놓은 책이다. 걷기, 스트레칭, 호흡, 그리고 근력 운동의 세부적인 방법과 목표를 명료하게 밝히고 이러한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접근법을 과학적 근거를 들어 제시한다. 또한 재활의학이 생활 속 의학으로 스며들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준다. 재활의학은 질병의 예방과 만성통증이나 성인병 극복에도 유용하기에 평생 건강한 몸을 누릴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나태한 정신과 근육은 병들기 쉽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삶을 향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기본 운동으로 나를 단련해보자. 행복한 삶이 마지막 그날까지 영위되지 않을까? 🏃

#### 저자 소개 강윤규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 대한임상통증학회 회장 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거쳐 국립재활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 조선의 농업지침서 《농가집성(農家集成)》

글 박선희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학예연구사 사진 국립중앙도서관



01

신숙은 지방에 거주할 때  
〈농사직설〉의 경험이 귀감이  
되었는데, 전해지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농사직설〉의  
본문과는 구별되게 행을  
낮춰 속방(俗方)을 추가하여  
편찬했음을 발문에서 밝히고 있다.

01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농가집성(農家集成)》

1) 《국조보감(國朝寶鑑)》卷7, 世宗 26

현전하고 있는 《농가집성》은  
판본 유형을 기준으로  
금속활자본, 목판본 그리고  
필사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신숙이 편찬한 《농가집성》

신숙은 문충공 신숙주(文忠公 申叔舟)의 7세손으로 본관은 고령(高靈)이고 자는 호중(浩仲), 호는 이지당(二志堂 또는 二知堂)으로 1600년 2월 24일에 신경락(申景洛, 1556~1615)과 별제 윤기무(別提 尹起畝)의 딸인 파평윤씨(坡平尹氏)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25세에 진사시, 45세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나 친인척 관계였던 김자점(金自點)의 옥사사건으로 청직(淸職)에는 오르지 못하고, 옥천(沃川), 영천(榮川, 영주), 연안(延安), 양주(楊州), 공산(公山, 공주), 통천(通川), 서원(西原, 청주)의 수령직을 맡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황해 등지의 지방관을 지냈다. 현재 신숙의 묘는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2021년에 의정부시 향토문화재 제25호로 지정되었다.

《농가집성》은 세종의 〈권농교문(勸農敎文)〉을 서두에 수록하고, 신숙이 증보한 〈농사직설〉과 주희(朱熹)의 〈권농문(勸農文)〉 3편 그리고, 강희맹(姜希孟)의 〈금양잡록(衿陽雜錄)〉과 〈사시찬요초(四時纂要抄)〉를 엮고, 송시열(宋時烈), 홍주세(洪柱世), 신숙의 서발문을 수록한 책이다. 〈권농교문〉과 〈권농문〉에서는 백성을 기르고 근본에 힘쓰는 도로서 농정에 힘쓸 것을 당부했으며, 〈농사직설〉이 곡식의 작물 재배에 중점을 두었다면, 〈금양잡록〉은 곡물의 품종 설명과 함께 토양의 종류에 따른 파종 시기 등 농가에서 부지런히 힘써야 할 것들에 대해 논하고 있다. 〈사시찬요초〉는 월령식과 비월령식으로 나누어 알맞은 풍토와 기후에 대해 설명하고, 농상(農桑)과 수예(樹藝)의 방법 등 농경 생활과 관련한 여러 방법들을 거론하였다.

신숙은 지방에 거주할 때 〈농사직설〉의 경험이 귀감이 되었는데 전해지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농사직설〉에 속방(俗方)을 추가하여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농가집성》을 간행한 시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한 폐해가 컸고, 광해군의 실정과 이괄의 난으로 국내 정세가 혼란스러웠으며, 기근 상황이 누적되어 전염병이 돌고 유랑민이 늘어나던 시기였다. 서원(청주)의 현감으로 재직하던 1660년에는 《신간구황촬요(新刊救荒撮要)》를 편찬하기도 하였는데, 신숙은 지방의 수령으로서 농사로 먹고사는 지방민들에게 농업 기술을 기록으로 남겨 전수하고자 한 것이다.

### 《농가집성》의 판본 유형별 특징

현전하고 있는 《농가집성》은 판본 유형을 기준으로 금속활자본, 목판본 그리고 필사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농가집성》의 금속활자본은 현종실록자로 숙종 초에서 영조 중반에 인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목판본은 공주본과 공주본의 번각 계열, 태인방각본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번각(飜刻)은 원본의 책을 분리해 목판에 뒤집어 붙여 그대로 새기는 것을 말하고, 방각본(坊刻本)은 민간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간행한 책이다. 공주본은 1655년에 충청감영에서 간행한 초간본이고, 공주본의 번각 계열은 1656년에 전라감영에서 간행한 완산중간본과 판각의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경상감영에서 간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주본계열로 구분된다. 태인방각본은 전이채(田以采)와 박치유(朴致維)가 純祖

세종(世宗)은 “농사란 의식(衣食)의 원천이며 왕정(王政)의 우선이 되는 것이므로 백성들이 농사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다스리는 사람들이 성실한 마음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세종은 백성들과 가까이 있는 관리에게 농사 문제를 맡겼으며,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농 정책을 시행하였다.<sup>1)</sup> 농사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농서(農書)가 필요했는데, 조선 전기까지 우리나라는 중국의 농서를 초록하고 이두로 번역하여 이용하다가 세종 11년(1429)이 되어서야 우리의 풍토에 맞는 《농사직설(農事直說)》을 편찬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정부의 주도로 농서의 간행은 이루어지지 않다가 효종 6년(1655)에 공주목사 신숙(申澗, 1600~1661)이 《농가집성(農家集成)》을 편찬하자 정부는 이 책을 전국에 반포했다. 《농가집성》의 반포는 《효종실록(孝宗實錄)》, 《조야첨재(朝野僉載)》, 《연려실기술(燃硯室記述)》,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등에 다수 수록될 만큼 중요한 것이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농가집성》을 통해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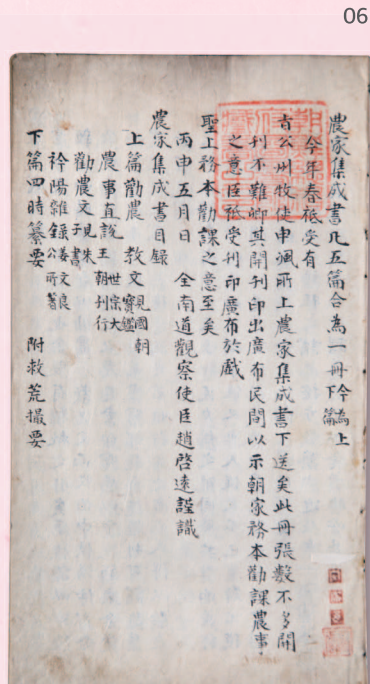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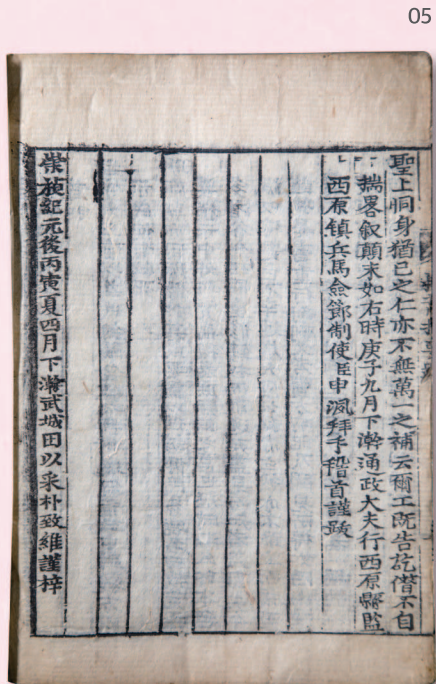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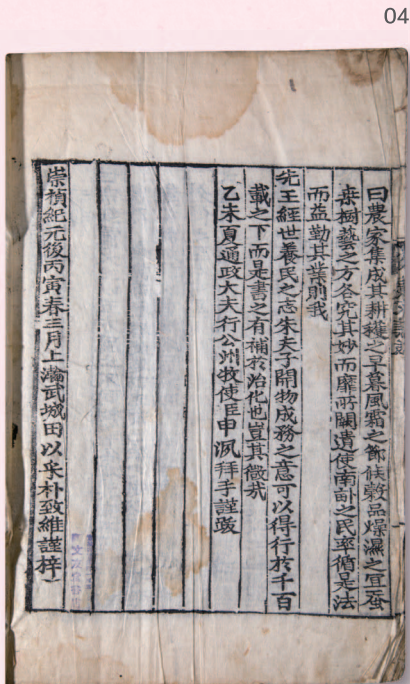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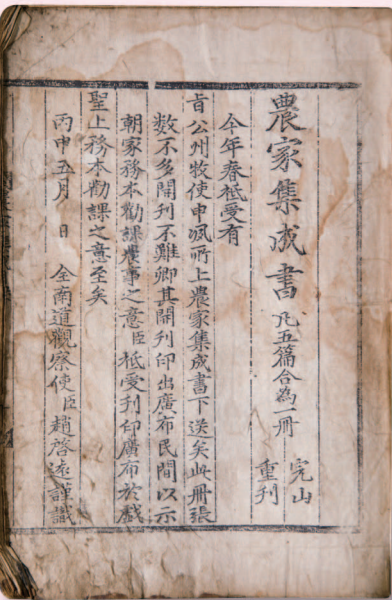


6년(1806)에 전라도 무성(武城, 태인)에서 방각본으로 간행한 책으로 권말에 부록으로 《신간구황촬요》를 수록했다. 그리고 공주본, 완산중간본, 태인방각본 등을 저본으로 필사한 책들이 있는데, 그중에는 1917년(규장각 해사본)의 필사본이 남아 있어 후대까지 널리 활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목판본인 완산중간본과 공주본계열, 태인방각본, 그리고 필사본을 소장하고 있으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판본 유형	청구기호	간기 및 수록 내용
완산중간본	①古 9110-9	刊記: 完山重刊. 丙申(1656)五月日 全南道觀察使臣趙啓遠謹識
공주본계열	①일모古 9150-1	후쇄본
	②古 915-4	5편 중 <권농교문>, <농사직설>, <권농문> 수록
	③한古朝 80-9	5편 중 <금양잡록> 수록
	④한古朝 80-8	5편 중 <사시찬요초> 수록
태인방각본	①古 9105-1	刊記: 崇禎紀元後[三]丙寅(1806)春三月上澣 武城田以采朴致維謹梓
	②古 9105-7	상편과 하편 수록
	③동곡古 9105-5	상편: <권농교문>, <농사직설>, <권농문>, <금양잡록>
	④무구재古 9105-4	하편: <사시찬요초>
	⑤한古朝 80-38	
	⑥古 911-8	刊記: 崇禎紀元後[三]丙寅(1806)夏四月下澣 武城田以來朴致維謹梓
	⑦古 9119-12	부록만 수록
	⑧일산古 9119-6	부록: <신간구황촬요>
필사본	①한古朝 80-5	태인방각본을 저본으로 상편과 하편을 필사함

- 02 《농가집성》 완산중간본(古 9110-9)  
03 《농가집성》 태인방각본(한古朝 80-38)  
04 《농가집성》 태인방각본(한古朝 80-38)  
05 《농가집성》 태인방각본(일산古 9119-6)  
06 《농가집성》 필사본(한古朝 80-5)



《농가집성》은 방각본과 필사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농업지침서였다.

2) 신숙의 가계와 이력, 《농가집성》의 편찬과 간행과정 및 판본계통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박선희·이혜은, <農家集成의 판본 연구>, 《서지학연구》 90, 133~161쪽, 2022

완산중간본은 조계원이 받은 유지의 내용과 “완산중간”이라는 간행 기록을 통해 1656년 전라감영인 전주에서 간행했음을 알 수 있다. 공주본계열은 간행 기록이 없어 언제, 어디서 간행했는지 알 수 없지만 지방 책판의 목록을 수록한 《책판치부책(冊板置簿冊)》에 전라도 전주와 함께 경상도 감영의 책판이 수록되어 있어 경상감영본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공주본계열의 ①일모본은 판목과 글자의 마멸 정도로 보아 판각 후 다소 시간이 지나 인쇄한 후쇄본이다. ②, ③, ④본은 동일 판본으로 모두 합하면 《농가집성》 한 책이 완성된다. 이는 《농가집성》이 5편의 독립적인 내용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소장자가 편리에 의해 분책하였으리라 짐작된다. 태인방각본은 《농가집성》 다섯 편의 내용을 상편과 하편으로 구분하고 <신간구황촬요>를 부록으로 추가했는데, 한 달여간의 차이를 두고 간행한 것을 보면 별책의 형태로 출판한 것이다. 이는 태인방각본 ①~⑤, ⑥~⑩을 보더라도 상편과 하편을 수록한 책을 간행하고, 부록은 별책으로 간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필사본은 목록과 내용 편차를 보면 태인방각본을 저본으로 필사한 것이지만 <신간구황촬요>는 제외하였다.

《농가집성》은 지방인 공주에서 목판으로 간행하여 전국에 반포하고 전주와 대구 등 지방의 감영에서 번각의 방식으로 재생산하여 정부의 권농 정책 의지를 알렸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방각본과 필사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농업지침서였다.<sup>2)</sup>





도서관을 만나다

꿈을 이루는 도서관

## 역동적 미래를 선도하는 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취재 신수빈 사진 정인수,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빠르게 변화하는 스마트 시대에는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등 최첨단 기술과 도서관 콘텐츠를 융합시킨 ‘미래형 도서관’이 뜨고 있다. 이러한 미래형 도서관은 효율성과 편의성을 갖춘 인프라를 구축해 이용자들에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중에서도 첨단기술을 통해 미래의 가치를 연결하는 도서관으로 거듭난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이하 창원도서관)을 찾았다.

### 첨단기술과 사람이 공존하는 미래형 도서관

1983년 11월 경상남도립창원도서관으로 개관하여 올해 40주년을 맞이한 창원도서관. 개관 이래 40년간 늘 지역주민 곁에서 차별화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3번의 국무총리 표창과 7번의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특히 올해는 작년에 새롭게 개관한 미래형 도서관인 ‘책담’의 성공적인 운영을 인정받아 ‘전국도서관 운영 유공’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었고 ‘제60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부지 1만 6,000㎡, 연면적 8,375㎡ 규모의 3개 건물로 분산되어 운영 중인 창원도서관은 작년에 ‘책담’을 새로 건립하면서 기존 건물들의 이름을 ‘꿈담’과 ‘해담’으로 변경하였다. 이 건물들의 명칭은 ‘책을 읽고 꿈을 담아 솟아오르는 아침 해와 같이 지식의 빛을 밝히다’라는 브랜드 스토리에서 비롯되었다. ‘책담’은 정보통신기술과 도서관 콘텐츠를 융합한 미래형 도서관을 표방하고 있으며, ‘꿈담’은 지역주민들의 꿈을 담은 평생학습 및 문화창작 공간, 사무 공간, 휴게 공간, 그리고 ‘해담’은 전시 공간, 세미나장 등 다용도 공간과 행정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창원도서관은 단행본과 비도서, 정기간행물을 포함하여 약 40만 권의 도서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 어디든 자료가 있는 곳은 ‘~누리’로 통칭하고, 특색 있는 북큐레이션을 제공하는 곳은 ‘~의 발견’으로 공간 명칭을 브랜딩하여 지역주민들의 꿈과 미래를 위한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 계절에 따라 다채로운 평생학습 프로그램

창원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의 질 높은 여가 생활 향유와 개인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연중

도서관에서  
미래의 가치를  
발견하다

책담 1층 유아·어린이들의 공간 ‘아이누리’







꿈담에서 진행한 신박한 정리 전문가 프로그램



책담 2층 자료실 '모두누리'



책담 1층에 마련되어 있는 '로봇존'

계절별로 운영하고 있다. '봄, the해봄', '여름, the가꿈', '가을, the채움', '겨울, the배움'으로 사계절에 따라 인문교양, 문화 예술, 건강, 정보화 등 영역별로 주제를 선정하여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수강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가을에 진행한 '가을, the채움'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소설, 에세이 등 창작 글쓰기를 배울 수 있는 '나만의 글쓰기', 가야금 연주법을 익힐 수 있는 '12줄의 가야금', 물건 정리·수납 방법을 지도하는 '신박한 정리 전문가', 바른자세 척추운동을 체험할 수 있는 'S.N.P.E.바른자세', 기초 타로카드 키워드 및 리딩법을 배울 수 있는 '타로카드 이야기', 스마트폰 또는 카메라를 이용한 동영상 편집을 배우는 '유튜브 제작소' 등 총 35개다. 특히 '신박한 정리 전문가'는 거실, 냉장고, 책장, 욕실 등 주거 공간에 따른 정리수납의 문제점 및 해결점을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많았다.

어린이 프로그램은 유아~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제품을 활용한 업사이클링을 체험하는 '초록별 지구 수비대', 음악줄넘기와 실내 체육활동인 '음악줄넘기', 사고력을 기르는 보드게임 등 총 16개를 토요일마다 운영 중이다. 또한 가야금, 유화, 독서토론, 글쓰기 등 주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을 위해 정기적으로 모이는 평생학습 동아리를 운영하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공간 '책담'

지난해 개관한 '책담'은 미래 첨단기술과 사람이 공존하는 미래형 공간이다. 책담 안으로 들어서면 마치 미래에 와있는 듯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로봇이 이용자를 반갑게 맞이하고, 무거운 책을 운반하며, 다양한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기도 한다. 그밖에도 연주자 없이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는 '자동연주피아노',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3D 홀로그램', 2D와 3D 세계지도를 기반으로 국가별 문학·전기·여행서를 추천해주는 '지리정보기반 도서추천시스템' 등이 이용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2층에 올라가면 역시 로봇과 여러 첨단기술을 만날 수 있다. 낮 동안 잘못 꽂힌 책을 밤새 점검하는 장서점검로봇과 대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기기 등이 구비되어 있다. 또한 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디지털 갤러리가 구축되어 있어 세계적인 명화가 시간차를 두고 변화하는 모습도 이색적이다. 특히 실감형 체험관인 '미래의 발견'은 작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전국의 교육청 소속 도서관에서 최초로 구축된 것으로 '검색의 미래, 책의 미래'를 체험해볼 수 있다. 올해 10월 말에는 대화가 가능한 사회용 얼굴로봇과 신나는 노래에 맞춰 군무를 추는 전시 공연형 로봇을 새롭게 도입했다. 로봇을 활용한 댄스 공연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요와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K-POP 메들리에 맞춰 이루어져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 도서관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노력

창원도서관은 '초연결 시대'에 걸맞게 도서관 환경 변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누리집을 통해 사물

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책담 이용 현황을 제공하고, 책담 곳곳을 누비는 9종 46대의 로봇들과 인공지능, 지리정보기반 도서추천시스템,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다양한 기술들을 도서관에 접목시켜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에 집중했다.

도서관 출입로에서 이용자들을 반갑게 맞이해주는 '스마트누리'는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인대출 반납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또 다른 미래형 도서관의 역할을 한다. 또한 첨단 기기를 활용한 이색 체험인 '샌드크래프트'를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도서관이 재미있고 행복한 공간임을 느끼게 해준다.

창원도서관은 이미 최첨단 서비스를 구축해놓았지만,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독서문화를 누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욱 다양한 분야의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나간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역주민의 일상과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창원도서관의 미래가 더욱 궁금해진다. ❷



'신박한 정리 전문가' 참여자  
강경숙 님

"집에서도 정리정돈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고 싶어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었는데 배울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집에서 강사의 노하우를 그대로 적용하니 깨끗한 집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만의 노하우도 점점 생기는 것 같아요.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신박한 정리 전문가' 참여자  
백지연 님

"요즘 제 생활이 기본 좋은 설렘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리수납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수업을 듣고 나서 주방, 냉장고, 장식장 등을 정리했는데 볼 때마다 흐뭇하고 뿌듯합니다. 10년 넘게 한 번도 안 쓴 물건들은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를 했어요.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해준 창원도서관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 LIBRARY INFORMATION

####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 ❶ 자료이용 책담, 꿈담

화~일 오전 9시~오후 9시

스마트누리

365일 24시간 운영

#### 휴관 매주 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 2024년부터 <월요 개방 사업> 실시 예정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97-33

☎ 055-278-2800







## 과거의 증인이자 미래의 원천 ‘튀르키예 이스탄불 라미도서관’

글, 사진 조금주

튀르키예(Türkiye)의 수도 이스탄불은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에 자리하며 역사와 문화의 도시로 손꼽힌다. 올해 튀르키예 공화국 건국 100주년을 맞은 이스탄불 중심지에 역사적인 문화공간인 ‘라미도서관’<sup>1)</sup>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고대의 자원과 정보를 후대에 전달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라미도서관은 ‘살아있는 정통 도서관’을 지향한다. 다른 도서관에서 만날 수 없는 라미도서관의 특별함을 소개한다.

### 250년 이상의 역사적 건축물, 라미도서관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가는 비행기에서 내내 불안했다. 지난 2월 수만 명의 사망자를 냈던 대지진에 이어 혹시나 있을 여진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마침 그날이 라마단<sup>2)</sup> 연휴가 시작 되는 금요일이었기 때문이다. 라미도서관 누리집에는 휴관에 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운영시간 안내에 주 7일 24시간 오픈이라고 되어 있었다. 공공도서관을 365일 운영한다고 하여 비행기에서 내려 곧장 도서관을 찾아가는데 그것은 맞는 말이기도 했고, 틀린 말이기도 했다. 라마단이라 휴관이던 자료실은 다음 날인 토요일 정오에 문을 연다고 했지만, 라미도서관은 운영 중이었다.

라미도서관은 튀르키예의 경제, 문화, 역사의 중심지인 이스탄불에서 2023년 1월 13일에 공공도서관으로 개관하였다. 25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역사적 건축물을 세심하게 복원해낸 이스탄불에서 규모가 가장 큰 도서관이다. 건물은 가운데에 정원을 두고 정원을 사면으로 둘러싼 직사각형의

1) 영어로는 Rami Library, 튀르키예어로는 Rami Kütüphanesi이다  
2) 이슬람력의 아홉 번째 달로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식사, 흡연, 음주, 성행위 따위를 금한다



02

회랑 형태인데, 실내 사용면적이 3만 6,000㎡이고, 안뜰 조경 면적이 약 5만 1,000㎡에 이를 정도로 거대하다.

실제로 유럽에서 가장 큰 조경 면적을 갖춘 도서관으로 내부에는 도서보존연구실, 자료열람실, 세미나홀, 카페를 겸한 레스토랑 3곳, 기록보관소, 박물관, 전시실 2곳 등이 있다. 라미도서관의 정원에는 원형극장, 독서공간, 행사 무대, 어린이 놀이터, 전시공간,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가 있으며, 나무로 둘러싸인 1,000㎡ 규모의 인공 연못도 있어 푸른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한다.

### 병영 막사에서 배우의 장소로

라미도서관을 둘러싼 이 광대한 녹지 공간은 이스탄불의 예유흐수(Eyüpsultan) 지구 경계 내에 있는데, 오스만 제국 시절 술탄 무스타파 2세가 통치 기간 동안 총리를 지낸 라미 메흐메트 파샤에게 선물한 것이다. 이후 술탄 무스타파 3세가 통치하던 기간에 군대 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가 1828~1829년 술탄 마흐무드 2세에 의해 개조되며 라미막사(Rami Barracks)로 알려지게 되었다. 라미막사는 1972년 국가 지정 ‘문화재’로 등록되었음에도 주차장, 축구장, 운동장, 식품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가 1980년대에 이스탄불 시(Istanbul Metropolitan Municipality)로 이관되었다.

01 이스탄불 최대 규모의 살아있는 도서관, 라미도서관

02 라미도서관 중앙정원의 인공호수



2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라미막사를 도서관으로 재건한다는 아이디어는 2010년 이스탄불이 유럽 문화수도로 지정된 것에서 비롯됐다. 문화재로 등록된 라미막사를 복원하여 공공도서관으로 개조하는 프로젝트는 2018년 에르도안 대통령(Recep Tayyip Erdoğan)이 직접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튀르키예 공화국 문화관광부의 끈질긴 노력을 통해 2014년부터 리노베이션을 시작해 2023년에 완공되었다. 특히 직사각형 막사 중앙에 있는 안뜰의 광대한 녹지 공간은 이스탄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고, 막사는 튀르키예에서 가장 중요한 도서관 중 하나로 탈바꿈했다. 4,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단지는 도서관만이 아니라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다.

생애주기를 반영하여 설계된 도서관에는 연령대별, 분야별, 장르별 전문서적을 갖추었으며, 유아 공간, 장애인 공간, 그룹 및 개별 스터디 공간 등이 있다. 특히 대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입시생들을 위한 열람실이 별도로 있는데,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 청소년들로 가득해서 튀르키예 역시 고등학교와 대학교 입학 경쟁이 치열함을 알 수 있다.

라미도서관은 공간의 다양성으로 모든 연령대의 방문객에게 '새로운 도서관 경험'을 제공한다. 0~3세 영유아 그룹부터 시작하는 연령별 공간은 초중고생들에게는 배움과 학습의 공간으로, 대학생과 학자들에게는 조사 및 연구 활동의 공간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250만 권의 방대한 서적을 갖춰 웅대함을 자랑하는 라미도서관은 방문객을 위한 녹색 생활

공간 및 아름다운 실내조경이 더해져 미학적인 공간으로 완성됐다.

#### 이스탄불의 '살아있는 도서관(Living Library)'

라미도서관은 전쟁과 분쟁으로 파괴된 튀르키예의 역사 속에서 고요한 안식처 역할을 해온 도서관의 고귀한 전통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현대 사회의 문화·교육·예술적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되었다. 고고학자와 역사학자들이 탐낼 만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필사본과 희귀 전문서적들은 도서관 내부에 있는 복원장치인 '시파하네(Şifahane)'에 보존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진화하고 역동적인 변화를 도모해온 라미도서관은 '살아있는 도서관(Living Library)'이 되었다.

향은 향습시설이 갖추어진 시파하네(Şifahane) 수장고 유물은 보존 구역에서 정기적으로 관리된다. 각종 유물과 서적의 노후화 정도는 도서관 연구실에서 진행된 연구를 통해 평가하고, 복원작업은 전문가들에 의해 꼼꼼하게 진행된다.

도서관 내부의 아타튀르크 연구전문도서관(The Atatürk Studies Specialization Library)은 튀르키예에서 가장 큰 아타튀르크<sup>3)</sup> 전문도서관이다. 이곳에서는 튀르키예 공화국의 역사, 터키어 및 문화, 특히 아타튀르크의 역사와 관련된

3)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Mustafa Kemal Atatürk, 1881~1938)는 튀르키예 공화국의 창시자로 '튀르키예의 아버지'라 불린다

저작물과 함께 사회 및 인문과학 분야에서 일하는 연구원과 독자들을 위한 2만 권 이상의 풍부한 장서를 제공한다.

이외에 역사, 지리, 문학, 천문학, 논리학, 음악, 이슬람 과학을 아우르는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필사본도서관(Manuscripts Library)과 도서관이 소장하는 고서와 희귀서의 문서 복원작업을 담당하는 생물화학연구소(Biology and Chemistry Laboratories), 튀르키예의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라미박물관(Rami Museum)과 전시장(Exhibition Hall)도 있다. 수백만 권의 도서, 비도서 자료 및 디지털 자료를 독자와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라미도서관은 일년내내 강연, 세미나, 워크숍 및 전시회를 주최하면서 문화, 역사 및 예술 분야 전반에 걸쳐 이스탄불 '최고의 명소'가 되었다.

#### 튀르키예 최초로 지속가능성을 인증받은 도서관

라미도서관은 '바이오스피어 지속가능 박물관 인증서(Biosphere Sustainable Museum Certificate)'를 받은 도서관이다. 바이오스피어(Biosphere)는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Global Sustainable Tourism Council)의 공인 프로그램으로 이 인증서는 보존, 연구, 커뮤니케이션 및 전시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관을 위해 고안된 관광 지속가능성 인증서다. 튀르키예는 스페인 외에 이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세계 유일의

03 희귀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장(Exhibition Hall)

04 대학입학준비 열람실(University Preparations Study Hall)



04

국가다. 도서관의 복원기술과 기반시설 시스템, 지역 문화 생활을 지원하는 구조, 그리고 방문객을 위한 녹색 생활공간 등 모든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고대의 자원과 정보를 후대에 전달하는 플랫폼으로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❷

#### [ 조금주 ]

도서관 건립 컨설팅, 도서관 운영자문, 사서 교육 등 도서관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는 <넥스트 라이브러리(Next Library)>의 대표 틸날 때마다 세계 각국의 도서관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 뒤 훑쩍 배낭을 짊어지고 그곳들을 찾아다니며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의 도서관을 꿈꾸고 있다. 《내 마음을 설레게 한 세상의 도서관들》(2020) 등을 집필했다.



**여행 더하기**

1

**튀르키예 이스탄불 라미도서관**

Yeni Rami Mahallesi, Rami Kışla Cd. 98/1, 34055 Eyüpsultan/İstanbul, Türkiye

매일 24시간 영업

+90-212-934-38-55

**여행 더하기**

2

**에움술탄 모스크**

선지자 무함마드의 친구가 묻힌 것으로 알려진 15세기 모스크

Eyüp Merkez, 34050 Eyüpsultan/İstanbul, Türkiye

24시간 영업

www.eyupsultan.bel.tr

**라미 M. 쿡 박물관**

교통수단, 산업, 통신 기술을 주제로 하는 박물관

Piri Paşa, Hasköy Cd. No:5, 34445 Beyoğlu/İstanbul, Türkiye

화~금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6시  
월요일 휴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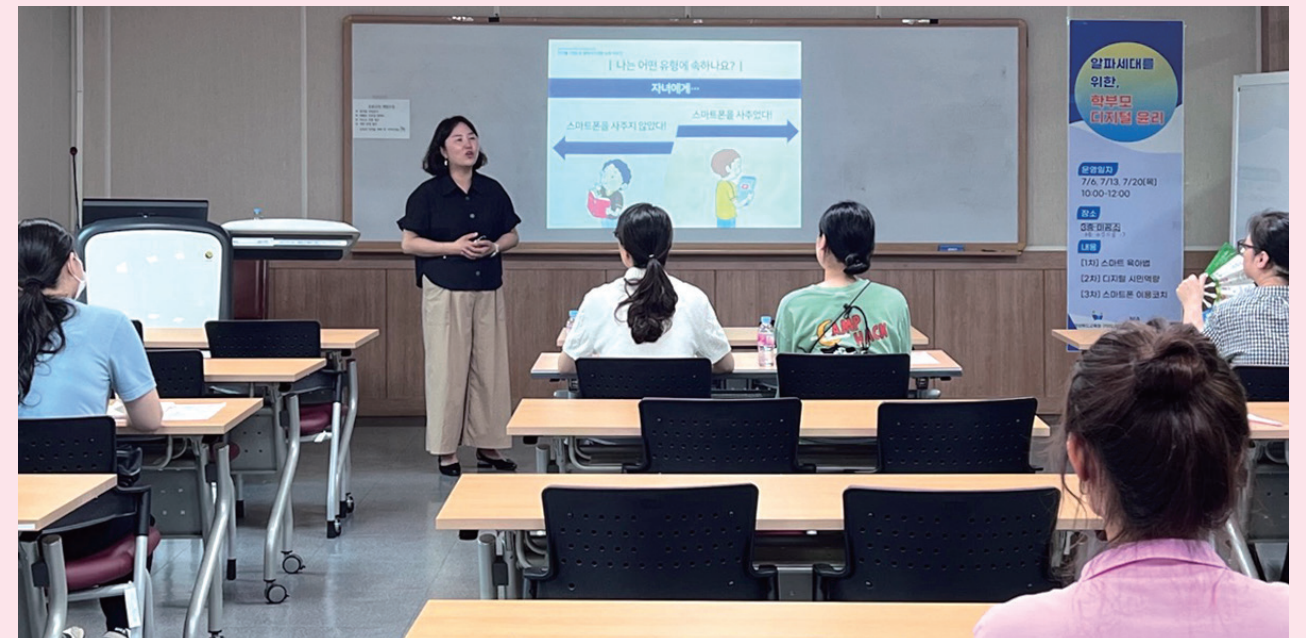
+90-212-369-66-00



## 알파세대와 도서관

글 박미숙 사진 각 도서관

X세대, Y세대, Z세대. 모두 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미디어에도 많이 나와 익숙한 'MZ세대'도 마찬가지. MZ세대는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를 한데 묶은 단어다.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문화를 열어가는 신세대를 통칭하는 단어로 쓰여 왔다. 'MZ세대'의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는 요즘,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 이른바 '진짜 요즘 애들'을 일컫는 'A세대', 더 정확한 표현은 '알파(Alpha)세대'이다.



구미도서관 '알파세대 우리 아이를 위한 학부모 디지털 윤리' 프로그램

### 알파세대를 말하다

알파세대는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을 말한다. 지금 기준으로 하면 10대 초반 청소년이다. 초등학생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라 생각하면 된다. 현재 40대인 밀레니얼세대의 자녀 세대가 할 수 있다. 알파세대를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브랜드 영향력과 구매력' 때문이다. 알파세대를 처음 명명한 호주의 사회학자 마크 맥크린들(Mark McCrindle)은 '소셜미디어 환경을 형성하는 힘과 대중문화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세대'라 전제한 뒤, '전에 없던 신인류'라는 표현으로 알파세대를 설명했다.

알파세대를 '전에 없던 신인류'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알파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디지털화'다. 알파세대는 현실과 온라인 세계를 자유롭게 오가며 자란 최초의 세대다. 이런 알파세대가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어렸을 때 코로나 팬데믹 환경을 온몸으로 맞이했다는 것이다. 비대면으로 세상을 겪었던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 누구보다 익숙한 세대가 될 수밖에 없었다.

다른 세대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당황하고 있는 시대에 알파세대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인공지능(AI)과 대화하고, 유튜브로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 이들은 기성

세대들이 갖는 국가관, 직업관과는 완전히 다른 사고를 하고 있으며, 온라인 환경에서 스스로 돈을 버는 것은 물론, 출생률 감소에 따라 이들을 위해 지갑을 여는 주변 어른들이 많아짐에 따라 소비 트렌드를 좌우하는 힘까지 갖고 있다.

### 알파세대와 도서관

그렇다면 알파세대를 맞이하는 도서관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지금 도서관들이 고민하고 있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첫 번째는 알파세대와 부모세대 간의 디지털 격차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알파세대들이 디지털 환경을 보다 잘 사용할게 하기 위한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구미도서관이 진행한 '알파세대 우리 아이를 위한 학부모 디지털 윤리' 프로그램과 태백시립·산소드림도서관에서 진행한 '라떼와 알파세대의 슬기로운 스마트폰 생활' 프로그램은 알파세대이거나 알파세대와 함께 사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디지털 환경을 맞이하는 방식을 알려준다.

또 한 가지 방향은 '알파세대의 독서환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조성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는 '종이'라는 물성을 가진 책과 알파세대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와 도서관은





태백시립·산소드림도서관 '라떼와 알파세대의  
즐거로운 스마트폰 생활' 프로그램



울산도서관 '디지털 키즈, 알파세대가 온다' 도서전

‘디지털북’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또한, ‘책을 읽지 않은 세대’로 일컬어지는 알파세대의 독서 문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고민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울산도서관에서 진행된 ‘디지털 키즈, 알파세대가 온다’ 도서전은 알파세대 관련 책은 물론, 미디어를 같이 전시해 알파세대를 바라보는 기성세대들의 시각을 넓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과정을 통해 도서관은 ‘알파세대의 독서법’이라는 새로운 담론을 형성해 가려고 노력 중이다.

#### 알파세대를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

알파세대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그룹으로만 해석하고 접근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지점이다. 알파세대를 연구하고 있는 진저티프로젝트 홍주는 대표는 “알파세대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사회적 만남의 기회가 부족했던 세대”라 전제한 뒤 “알파세대는 만남을 갈구하는 세대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알파세대는 자신들이 원하지 않은 사회적 단절을 겪으면서 오히려 사람 간의 만남을 원하는 세대가 되었지만, 정작 만남의 방식과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른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홍 대표는 “어려서부터 확실한 자기 취향을 가진 세대로 같은 반 친구의 이름은 몰라도 취향은 아는 특징을 갖기도 한다”며 “도서관이 지역 안에서 취향 중심으로 알파세대의 만남을 주선하는

기회를 마련하길 바란다”는 말도 전했다. 지역사회 문화 플랫폼인 도서관이 알파세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알파세대를 위한 활동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이다.

#### 알파세대와 함께하는 도서관 문화

사실, 아직은 도서관이 알파세대의 문화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내지 못하고 있다. 어떤 의미로는 ‘신인류의 등장’이라고 여겨질 만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알파세대를 도서관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는 앞으로 도서관의 역할을 결정하는 중요한 숙제가 될 것이다. 아직 어리지만, 스스로 SNS 환경을 만들고 인플루언서가 되기도 하는 초디지털세대인 알파세대. 한편으로는 취향을 중심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싶은 욕망이 강한 알파세대를 도서관에서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때이다. ❷

#### | 박미숙 |

고양시립 일산도서관 관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지역신문에 ‘그림책으로 본 세상’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연재 중이다. 저서로 《도서관에 간 외계인》,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 《손바느질로 만나는 그림책 주인공》 등이 있다.

## 공감을 펼치다



#### 34 북데이터

중장년을 위한 책 읽기  
4050세대 독서 트렌드

#### 36 오늘의 만남

동물복지 수의사의  
행복한 숲속 생활  
수의사 손서영

#### 44 고전 드라마

어떤 선물이 좋을까?  
오 헨리 《크리스마스의 선물》

#### 40 K-인문학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배척에서 포용으로

#### 48 오감독서

수상한 연구소의 비밀실험  
그렌다 본드  
〈기묘한 이야기: 최초의 의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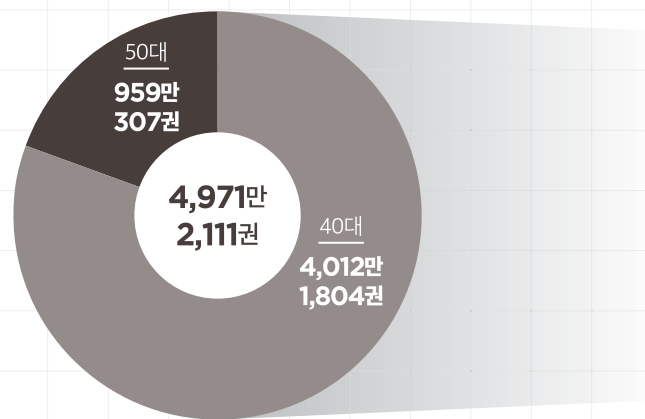
# 중장년을 위한 책 읽기

## 4050세대 독서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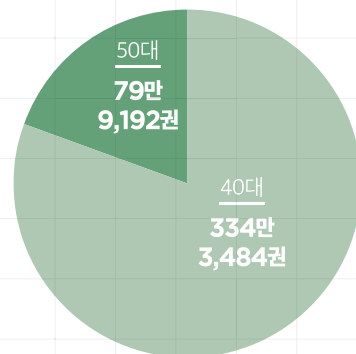


최근 1년간 4050세대 공공도서관 대출량

1년 총 대출량



한 달 평균 대출량



최근 1년간 4050세대 주제별 대출 분석



최근 1년간 40대는 4,012만 1,804권을 대출했고, 한 달 평균 334만 3,484권을 읽었다. 50대는 최근 1년간 959만 307권을 대출했고, 한 달 평균 79만 9,192권을 읽었다. 주제별 대출 분석을 살펴보면 문학이 46.2%로 다른 분야보다 월등한 비율을 차지했다. 그 뒤로 사회과학, 자연과학, 역사 분야가 순서대로 인기를 끌었다.

올해는 '4050 중장년 책의 해'이다. 인생의 가장 활동적인 시기를 맞이한 4050세대는 자신의 꿈과 취미를 찾고, 삶을 즐기고 있다. 특히 다른 연령층에 비해 도서 구매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4050 중장년 책의 해를 기념하여, 최근 1년간 4050세대의 주제별 대출 분석과 인기대출도서를 함께 알아본다.

자료출처 도서관 정보나루(data4library.kr) 분석기간 2022. 11. 01.~2023. 10. 31.

4050세대 인기대출도서

문학



1위

- |    |                  |                        |
|----|------------------|------------------------|
| 1위 | 불편한 편의점 1, 2     | 김호연 지음   나무옆의자   2021  |
| 2위 | 아버지의 해방일지        | 정지아 지음   창비   2022     |
| 3위 |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 황보름 지음   클레이하우스   20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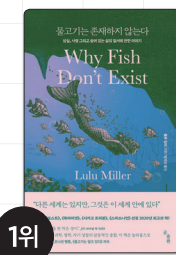
사회과학



1위

- |    |         |                                   |
|----|---------|-----------------------------------|
| 1위 | 역행자 확장판 | 자청 지음   웅진지식하우스   2023            |
| 2위 | 돈의 속성   | 김승호 지음   스노우폭스북스   2020           |
| 3위 | 돈의 심리학  | 모건 하우절 지음   이지연 옮김   인플루엔셜   20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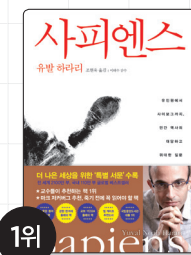
자연과학



1위

- |    |                 |  |
|----|-----------------|--|
| 1위 |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 룰루 밀러 지음   정지인 옮김   공출판   2021         |
| 2위 | 코스모스: 특별판       | 칼 에드워드 세이건 지음   홍승수 옮김   사이언스북스   2006 |
| 3위 |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 | 심채경 지음   문학동네   2021                   |

역사



1위

- |    |              |   |
|----|--------------|---|
| 1위 | 사피엔스         | 유발 하라리 지음   조현욱 옮김   김영사   2015           |
| 2위 | 역사의 쓸모       | 최태성 지음   다산초당   2019                      |
| 3위 | 벌거벗은 세계사 시리즈 | 이현희 지음   신동민 그림   김현, 조관희 감수   아울북   2022 |

문학 분야는 편의점을 배경으로 삶의 회로애락을 그린 《불편한 편의점》이 1위를 차지했다. 사회과학 분야는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쟁취하는 라이프해킹의 비밀을 담은 《역행자 확장판》, 자연과학 분야는 19세기 어느 과학자의 삶을 흥미롭게 쫓아가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 분야는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류 문명화에 대한 거대한 서사를 다룬 《사피엔스》가 큰 인기를 끌었다. 📖





### | 손서영 |

동물복지 전문 수의사. 영국에서 동물복지를 공부하고 서울로 돌아와 수의사로 일을 하다가 부모님이 계신 시골마을로 내려와서 동물병원을 차렸다. 32마리 유기견과 7마리 유기묘를 보살피며 함께 살고 있다. 숲속 동물병원 수의사의 행복한 일상 이야기를 담은 《사는 동안 행복하게》를 썼다.

## 동물복지 수의사의 행복한 숲속 생활

### 수의사 손서영

취재 신수빈 사진 정인수

서울에서 수의사로 성공만 쫓다가 자연 속에서 동물들과 뛰어 놀며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은 수의사 손서영. 올해 그는 숲속에서 여러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며 온몸으로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한 수의사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다. 손서영은 병원에 찾아오는 아픈 동물을 치료하고, 저마다의 사연을 지닌 동물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일상은 비록 고되지만,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라고 말한다. 동물들과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수의사 손서영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Q1

《오늘의 도서관》 독자들에게 간단한 소개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서 작은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손서영 수의사입니다. 저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보호소와 연계하여 봉사활동도 하고, 아픈 보호소의 유기동물들을 치료해주고 입양도 보내며 유기동물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활동을 하다가 저와 인연이 닿은 아이들은 제가 입양하여 지금은 32마리의 유기견과 7마리의 유기묘를 보듬고 있습니다.

#### Q2

수의사의 꿈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어릴 적부터 동물을 좋아했으며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는 수많은 방법 중 의료적으로 도와주는 방법이 가장 필수적인 것 같아 이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수의사가 되고 나서

부터 방향을 참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동물을 도와주는 수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수의사가 되어서 어떻게 도와줄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을 해보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방향 끝에 동물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동물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물 복지'를 공부하러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제 꿈을 위한 첫 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Q3

수의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수의사는 크게 임상 수의사와 비임상 수의사로 나뉩니다. 비임상 수의사는 실험실에서 동물실험을 주도하거나 제약회사, 사료회사 등에서 다양한 업무를 봅니다. 임상 수의사는 다시 소, 돼지 등의 농장동물을 다루는 '대동물 수의사'와 개, 고양이를 제외한 조류, 파충류, 설치류 등을 치료하는 '특수동물 수의사', 그리고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소동물 수의사로 나뉩니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소동물 임상직은 진단장비를 이용하여 아픈 개와 고양이를 진단하고 진단한 병명에 맞게 처방하여 치료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Q4

작은 마을의 동물병원 수의사로 살고 계세요. 이전의 삶과 달라진 점이 있나요?

예전엔 한국에서 가장 위중한 환자가 오는 서울대학교 부속 동물병원에서 일을 했고, 그 뒤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동물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지금의 환경과는 달라 너무 다른 환경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진 지금의 환경이 나쁘지 않습니다. 돈을 벌려면 좋은 환경은 아니겠지만, 저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마을 분들은 서울 분들처럼 개와 고양이를 고가의 돈을 주고 산다는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길에서 만난 유기견이나 길냥이를 거두어 키우게 되는 경우가 도시에 비해 훨씬 빈번합니다. 저한테는 너무 반가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보호자분과 환자가 오면 더 신경 써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 05

## 본인에게 반려동물은 어떤 의미인가요?

반려동물은 저를 살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이들이 저에게 족쇄 같은 존재인 줄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저에게 삶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처음 저에게 반려동물이 선물처럼 찾아왔을 때부터 줄곧 그랬어요. 삶에 치이고 지칠 때마다 이들은 저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가져다 줬어요. 제가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려는 듯 저를 온몸으로 반기기도 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말을 해주는 것처럼 온 얼굴이 침범벽이 될 때까지 달려들어서 뽀뽀를 해주죠. 그래서 저는 유기동물이 계속 발생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힘들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들이 얼마나 많은 걸 느끼고 알고 있는지 저는 아니까 그들의 상처를 자꾸 보듬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들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반짝이는 매력들을 보지 못하고 쉽게 버리는 걸까요? 저는 버려진 아이들이 쓰레기처럼 유기동물이 되어 수용소 같은 곳에 뒤엉켜 지내다 결국 안락사되는 현실을 바꾸고 싶어요.



동물병원에서 아픈 강아지를 치료해주고 있는 손서영

## 06

## 그동안 일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예전에 한 아저씨께서 후지(뒤쪽 두 다리)가 마비된 닥스훈트를 안고 오셨습니다. 발에서 일하시다 바로 오신 복장과 조금은 화가 난 듯한 모습의 아저씨는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길에 쓰러져 있는 유기견을 발견하고 데려오셨다고 합니다. 누가 버리고 간 것 같다고 화를 내시며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치료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아저씨를 진정시키고 최소한의 비용만 청구하고 약을 처방하고 주사 처치한 후 돌려보냈습니다. 일주일 뒤 그 유기견은 많이 호전된 모습으로 다시 병원을 찾았고 그 아저씨는 이것도 인연인데 자기가 키우기로 했으며 멧쩍은 웃음을 지어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치료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잊지 않으셨어요. 이럴 때가 수의사로서 가장 행복하고 뿌듯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 07

## 수의사라는 직업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인가요?

수의사는 기술직이라서 실력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저도 젊은 나이도 아니고, 전혀 아는 사람도 없는 시골에 느닷없이 내려와서 먹고 살 걱정이 막막했는데 의외로 동물병원이 잘 되고 있어서 지금은 제 직업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수의사가 아니었다면 어디 취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동물병원비가 고가에 속해서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이 아플 때 부담을 느낍니다.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도 부담스러운데 길에서 마주친 반려동물이나, 보호소에 있는 반려동물을 치료해 주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제 직업이 제일 빛을 발휘하죠. 거의 비용을 받지 않거나 무료로 진료를 봐드리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재능 기부인데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저에게 큰 축복이죠.

## 08

## 수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우리나라에는 수의대가 10군데 있습니다. 서울에는 서울대와 건국대에 있고요. 수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에서 보는 수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진료를 볼 수 있는 정식 수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수의대를 갓 졸업하고 바로 임상을 보기는 힘들고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동물병원에 인턴으로 입사를 해서 경험을 쌓은 후에 진료를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09

## 신간 《사는 동안 행복하게》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사는 동안 행복하게》는 제가 시골로 내려와서 블로그에 꾸준히 써내려간 글을 모아서 출간하게 된 책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반려동물들과 함께 하면서 느낀 감정, 그리고 서울에서 살 때와 지금의 삶 속에서 달라진 생각들, 반려동물들이 나에게 오게 된 저마다의 사연들을 기록하고 싶어 시작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그로 인해 출판의 기회까지 얻게 되어 이렇게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 10

## 어떤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독자들의 반응, 후기도 궁금합니다.

동물을 사랑하지만 동물에 관한 글들은 항상 동물을 도와달라고 동물들이 이렇게 힘들다고 써놓은 글들이 대부분을 차지해 마음이 아프다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행복한 동물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과 함께 하는 삶이 고달프고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행복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고 충분히 해볼 만한 삶이라는 것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독자로는 카페에서 제 책을 읽는데 자꾸 미소가 지어져 혼자 웃고 있으니 남들이 이상하게 볼까 봐 신경이 쓰이셨다는 분이 가장 생각이 나네요. 후기는 대부분의 인터넷 서점의 평점이 전부 만점이라서 좋았습니다.

## 11

##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실 조언이 있다면요?

반려동물을 키우고자 결정한 사람은 본인이며 선택을 당한 개체가 동물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과 동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고로움은 모두 보호자의 몫이어야 합니다. 그걸 생색내서도 안 되고 반려동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화를 내어서도 안 됩니다.



32마리의 유기견과 7마리 유기묘를 키우는 숲속 수의사의 이야기를 담은 《사는 동안 행복하게》

제 책에 '우리와 사는 동물은 행복할까?'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보호자의 최소한의 역할'이 나옵니다. 그 역할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이 있을 때 그때서야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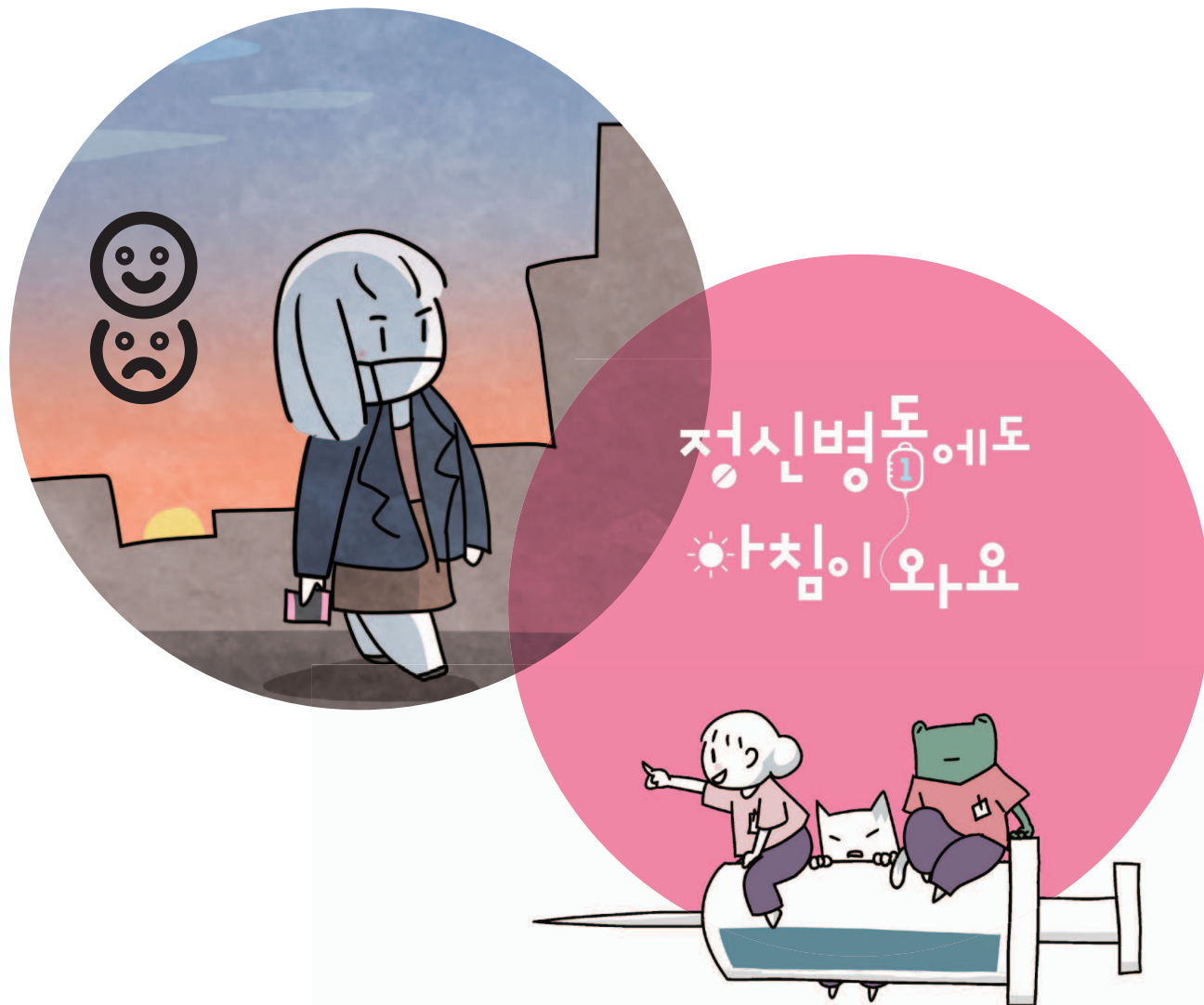
## 12

## 한 해를 되돌아본 소감과 새해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올 한 해는 정말 바쁘고 변화도 많고 뭔가 저에게 많은 일이 일어났던 한 해였습니다. 방송 촬영도 했고, 책도 출간했고, 병원 스텝진도 늘었고, 유기동물과 관련된 일들도 늘어났습니다. 정말 바쁜 한 해였지만 그만큼 뿌듯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유기동물 보호소의 시설 전반 개선에 힘써보고 싶고, 보다 많은 유기동물들을 입양 보낼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인 방식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걸음이라도 내딛어 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의사 손서영의  
인터뷰 영상은 국립중앙도서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배척에서 포용으로

글 정덕현 사진 이라하, 위즈덤하우스

미셸 푸코는 《광기의 역사》에서 절대적 기준이 기준 바깥의 것들을 배척하고 차별해온 폭력의 역사를 계보학적으로 다룬 바 있다. 그는 광기관 절대적 개념이 아니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교되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걸 전제한 후, 그래서 이성이라는 절대적 기준이 등장해 그 바깥 것들을 비이성으로 재단하면서 구별과 제재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한다. 즉 이러한 기준에 의해 광기는 감금, 배제, 교정, 치료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도 여전히 정신병으로 불리는 이 광기는 배척의 대상일까. 정신적인 상처로 인해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그 바깥으로 튕겨 나온 이들을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

### {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그들과 우리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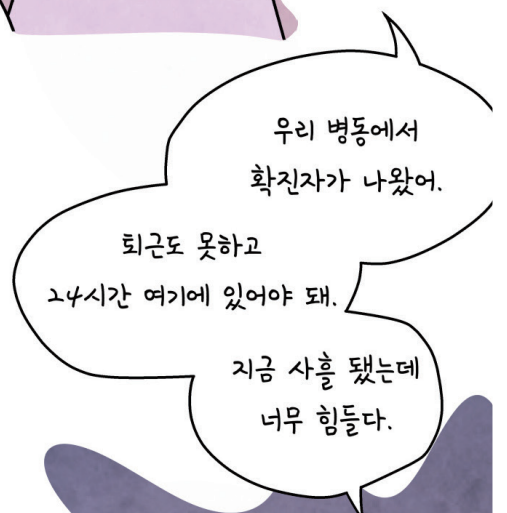
실제 간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라하 작가가 쓰고 그린 웹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조증 증세를 보이는 리나 이야기로 시작한다. 딸 사랑이 유별나 모든 걸 챙겨주는 엄마 덕분에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살아왔을 것 같지만, 리나는 흥분해 정신을 놓으면 옷을 벗어 던지고 춤을 추며 오줌까지 싸는 모습으로 간호사 시나를 놀라게 한다. 리나의 엄마는 리나가 학창 시절에는 반장을 도맡아 했고, 임용고시에도 단번에 붙고 판사와 결혼해 아들을 둘이나 낳은 ‘사랑스럽고, 믿음직스럽고, 성공한’ 딸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처럼 남부러운 것 없이 살아온 리나는 어째서 조증 증세를 보이게 된 걸까. 그건 ‘하라는 대로’ 열심히 살아왔던 그 지점에서 생겨났다. 스스로 뭐하나 결정하기 힘들어진 삶이 문제였다. 옷을 벗어 던지고 춤을 추는 그 순간은 그래서 리나에게 이런 속박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을 안겨준 셈이다.

드러난 증상으로만 보면 리나의 이상행동들은 우리와는 확연히 다르고 심지어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하지만 웹툰은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하는 이면에 담긴 인물들이 겪은 상처를 들여다본다. 그런데 그 상처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들이다. 특히 유독 부모들의 자식 사랑이 깊어서 때론 오히려 더 하는 우리네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리나의 이야기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의 이야기’로 보이지만 차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들’도 겪을 수 있는 이야기로 바뀐다.

그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로 전환되는 이 웹툰의 스토리 방식은 여러 사례들을 통해 그려진다. 사법고시에 연거푸 실패한 후 망상과 환청에 시달리는 환자의 이야기나, 거식증, 폭식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이야기가 그것이다. 이들이 겪는 정신질환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을 그렇게 몰아세운 우리 사회의 풍경이 그려진다. 정신병동의 이야기는 그래서 그 프레임 바깥에 놓여 있는 우리 사회의 이야기가 된다. 결국 간호사인 시나 역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환자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데 이것은 가장 극적으로 그들과 우리들 사이의 경계를 해체시키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더이상  
바뀌는 일은 없을 줄 알았다.







지금은 인식이 많이 달라졌지만,  
한때 정신병원은 갖가지 편견과 선입견으로  
그 문턱을 넘기가 어려운 공간으로  
치부된 적이 있었다.



### { 여기라고 다를까, 포용해야 할 다름 }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제목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결코 아침이 올 것 같지 않은 캄캄한 어둠 속에 놓여 있는 환자들에게도 결국 그 밤은 지나가고 아침이 온다는 희망적인 의미가 그 하나라면, 정신병동이라고 다른 곳과 그리 다를 바 없다는 의미가 나머지 하나다.

지금은 인식이 많이 달라졌지만, 한때 정신병원은 갖가지 편견과 선입견으로 그 문턱을 넘기가 어려운 공간으로 치부된 적이 있었다. '미친 사람'이라는 시선이 정신병원의 출입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신경정신과'나 '정신건강의학과' 같은 이름을 붙이기도 했고, 병원들도 문턱을 낮추기 위해 '마음 클리닉' 같은 식의 순화된 지칭을 쓰기도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식의 변화다. 감기에 걸리면 내과를 찾아가듯이 마음의 감기가 들면 정신과를 찾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요즘처럼 마음의 상처들을 받는 환경들이 더욱 많아진 삶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 { 배척이 아닌 포용하는 삶 }

그리스 신화에는 프로크루스테스라는 도적이자 연쇄살인범의 이야기가 나온다. 다른 도적들과 달리 행인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잠자리까지 제공하는 이 인물은, 모든 이에게 크기가 맞는 침대가 있다며 손님들을 눕힌 다음 침대보다 키가 크면 남는 목이나 다리를 자르고, 침대보다 키가 작으면 침대 길이에 맞춰 늘리는 방법으로 손님들을 살해한다. 이러한 악행은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에 의해 끝장나게 되는데, 테세우스는 똑같은 방법으로 프로크루스테스를 처단한다. 이 신화에서 비롯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표현은 자신의 기준으로 타인의 생각을 억지로 자신에게 맞추려 하는 폭력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누구나 '자기만의 침대'를 합리적 기준이라 착각하고 타인을 재단하려는 태도를 고집는 표현이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표현에 담긴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기준이 만들어내는 배척과 소외의 문제는, 정신병동을 찾는 환자들만이 아닌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예를 들어 도시를 하나의 삶의 기준처럼 세워 소외되고 심지어 소멸되어가는 지역의 문제나, 중년의 어른을 기준으로 세우는 삶이 소외시키는 어린이나 노인의 문제 같은 게 그렇다. 즉 우리 사회 어딘가에 우리도 모르게 세워진 기준들은 그 자체로 기준 바깥의 것들에 대한 배척의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걸 늘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호사 시나가 아픈 환자들을 꼭 꺼안아 주며 "많이 힘들었죠"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이제 배척이 아닌 포용이 우리 사회에 소외되어 어두운 밤을 버텨내는 삶들에 아침의 햇살을 비춰주지 않을까. ☺

### | 정덕현 |

대중문화평론가이자 칼럼니스트. 각종 방송 활동, 강연 등을 통해 대중문화가 가진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 있고, 백상예술대상, 대한민국 예술상 심사위원이다. 저서로 《드라마 속 대사 한 마디가 가슴을 후벼팠 때가 있다》, 《다큐처럼 일하고 예능처럼 신나게》 등이 있다.





## 어떤 선물이 좋을까?

오 헨리 《크리스마스의 선물》

글 김규범 사진 위키피디아



The Gift  
of the Magi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많은 사람이 가족에게, 연인에게, 그리고 소중한 누군가에게 “어떤 선물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미국 작가 ‘오 헨리(O. Henry, 본명: William Sidney Porter, 1862~1910)’의 1906년작 단편소설 <크리스마스의 선물(원제: The Gift of the Magi)>은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고받는 ‘가난하지만 착한 부부’의 에피소드를 통해 ‘모든 인생은 가치가 있고 사명과 목적이 있다’라는 인간적인 메시지를 전하며 ‘어떤 선물이 좋다’라는 답이 아닌 ‘선물을 고민하는 사람 자체가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답을 제시합니다.

“길가의 조그마한 돌 하나도 목적 없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오 헨리)

#1

작고 허름한 아파트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짐과 델라 부부.



#2

어느덧 크리스마스 하루 전날.  
델라는 부족한 형편이지만  
남편인 짐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고민한다.



#3

하지만 델라가 가진 돈은  
고작 1달러 87센트뿐이었다.  
델라는 거울에 비친 길고 빛나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바라본다.



#4

결국 델라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상점에 팔았고  
그 대가로 20달러를 받았다.  
과연 델라는 어떤 선물을 살까?





## 가난하지만 행복한 신혼부부

- 인물관계도 -



Jim

짐

델라의 남편.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시계가

자랑거리였지만 델라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 시계를 팔고 만다.



Della

델라

짐의 아내.

황금빛이 나는 머리카락이

자랑거리였지만 짐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 머리카락을 잘라 상점에 판다.



### 작품 읽기 준비운동\_동방박사의 선물

널리 알려진 제목인 ‘크리스마스의 선물’의 원제는 ‘동방박사의 선물(The Gift of the Magi)’입니다. ‘동방박사(Magi)’라는 단어는 ‘3인의 박사(또는 현자, 왕)’를 뜻하는 단어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선물을 바쳤다고 신약성서에 기록된 인물을 지칭합니다.

작가 ‘오 헨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예견하고 선물을 가져온 ‘현자’가 말 그대로 ‘현명한 사람’이기에 ‘동방박사의 선물’ =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결이 가능한 선물’이라는 생각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그 위에서 ‘전혀 현명하지 못한 선물’을 주고받는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고는 부부가 주고받은 선물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현자의 선물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렇듯 ‘동방박사의 선물’은 선물의 가치를 따질 때 비교할 ‘최상급’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줄거리 알아보기\_서로를 생각한 부부의 마음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부부 ‘짐’과 ‘델라’는 허름한 아파트에 세 들어 살고 있습니다. 엉망진창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지 떼가 몰려들기에 딱 알맞을 정도의 공간입니다.

어느덧 크리스마스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델라는 짐에게 줄 선물을 고민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가지면 영광스러울 만한 선물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진 돈은 1달러 87센트뿐, 그나마도 아끼고 아껴 어렵게 모은 돈입니다. 델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윽고 머리채를 풀어 한껏 길게 어깨 위에 드리우자, 황금빛 폭포가 물결치듯 빛나는 머릿결이 드러납니다. 머리카락은 그녀의 대단한 자랑거리입니다. 델라는 단호하고 재빠르게 상점으로 찾아가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습니다. 그 대가로 20달러를 받았고, 가지고 있던 1달러를 더해 ‘시곱줄’을 구입했습니다. 남편이 할아버지 대부터 물려받아 온 근사하고

훌륭한 시계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줄이 달려 있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던 델라는 자신의 자랑거리인 머리카락을 팔아 남편에게 꼭 어울릴 좋은 물건을 구입한 것입니다.

델라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기다립니다. 찝막해진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남편이 자신을 예쁘게 여기지 않으면 어찌나 하는 걱정을 한 채 말이죠.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옵니다. 아내의 달라진 모습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서 뭔가 헤아릴 수 없는 복잡함이 느껴집니다. 델라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말아요. 당신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고 싶었어요. 제 머리카락은 하나하나 셀 수 있을지 몰라도, 당신을 위한 내 사랑은 누구도 셀 수 없을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대답합니다.

“머리카락을 잘라버렸건, 면도를 했건 그런 것들이 당신을 향한 내 애정을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 묶음을 펼쳐보면 내가 왜 멍청했었는지 알게 될 거예요.”

델라는 짐이 가져온 묶음을 펼쳐봅니다. 그 안에는 델라가 오래전부터 갖고 싶어 했던 머리빗이 담겨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져버린 델라의 머리채에 꽂으면 아주 잘 어울릴 빗갈의 머리빗이었습니다. 곧이어 델라가 준비한 시곱줄을 선물 받은 짐이 말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은 잠시 보류하기로 해요, 나는 당신 머리 빗을 살 돈이 필요해서 시계를 팔아버렸어요.”

델라는 머리카락이 금방 자랄 것이라며 남편을 위로하고, 집은 음식을 만들어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자며 아내를 위로합니다.

### 어떤 선물이 좋을까?

싸구려 아파트에 사는 바보 같은 어린 부부가 각자에게 가장 귀중한 보물을 서로를 위한다며 현명하지 못하게 희생시킨 모습을 그린 이 에피소드는 ‘모든 사람은 각자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다’라는 인간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과 결합해 ‘이들의 현명하지 못한 희생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현명한 선물이 되었다’는 이야기로 완성되었습니다. 작가는 작품 후반에 이르러 델라와 짐에 대해 이런 말을 전합니다. “그들이야말로 동방박사이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선물과 함께 상대방의 마음이 여러 분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현자’의 선물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가장 소중한 선물은 ‘나를 위해 선물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

### | 김규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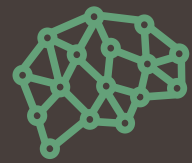
독서라는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아서 책을 읽고 책을 소개하고 감상을 나누는 공간인 유튜브 채널 <사월이네 북리뷰>를 운영하고 있다. 직장인을 위한 고전 안내서 <고전의 고전>을 집필했다.



# 수상한 연구소의 비밀실험

## 그렌다 본드 《기묘한 이야기: 최초의 의심》

글 신수빈(부문디자인)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과 베트남전 반대 시위로 들썩이던 1969년, 미국 인디애나주의 작은 마을 호킨스에 이상한 비밀실험을 하는 수상한 연구소가 있었는데... 과연 연구소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보다 앞선 과거의 이야기를 다룬 속편 속으로 들어가 본다.



### 《기묘한 이야기: 최초의 의심》

그렌다 본드 지음 | 권도희 옮김 |  
나무옆의자 | 2020



### 이상한 실험에 동참하다

식당 아르바이트를 끝낸 주인공 테리는 남자친구인 앤드류의 집에 들른다. 앤드류의 친구 데이브가 가져온 19인치 흑백텔레비전으로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보기 위해서다. 그날 테리는 룸메이트인 스테이시가 한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심리 실험에 자원했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실험은 연구원이 지원자의 팔뚝에 주사를 놓고 알약을 먹게 한 뒤 지원자에게 여러 질문을 하는 방식이었다. 특이한 건 여성만 실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데, 스테이시는 그렇게 지독한 환각 상태는 평생 처음 경험했다며 15달러를 벌 수 있지만 다신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15달러면 아파트 한 달 집세다. 돈이 궁한 테리는 스테이시 대신 본인이 실험에 참여하기로 한다.

대학 캠퍼스 심리학부 건물에서 비밀유지각서를 쓴 테리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브레너 박사를 만난다. 브레너 박사는 대학 직원이 작성한 서류를 통해 테리가 스테이시가 아니란 사실을 알아차렸고, 테리도 사실을 인정하고 대학생 나이의 여자들을 불러 모아 약을 먹으라고 권하는 연구는 분명 중대한 연구라는 생각에 꼭 연구에 동참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힌다. 브레너 박사는 자신의 연구가 최첨단의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임을 인정받았다고 말하지만, 테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그녀는 3주간 연구에 동참하기로 했고, 그 결정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호킨스 연구소에서 실험을 받게 된 테리는 처음 환각제를 경험하게 된다. 테리의 눈꺼풀 뒤로 다양한 색들로 어우러진 점선이 나타났고 브레너 박사의 물음에 테리는 무지개가 보인다고 대답한다. 무지개는 한참 동안 테리의 눈앞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다 어둠이 나타나고 어느 순간 주위가 밝아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와 있었지만 모든 감각이 그대로 살아 있었다. 테리는 무의식의 상태에서 브레너 박사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하며 최면술에서 깨어난다. 최면술을 통해 실험대상자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싶었던 브레너 박사는 다른 실험대상자들과 달리,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테리의 강인한 기질이 이 실험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무엇에 집중해야 하죠?”

“당신의 의식을 확장하고 깊이 파고들어가는 겁니다.

난 밖에서 계속 당신을 인도할 거예요.”

“이 모든 게 무엇을 위한 실험인지

언제 알려주실 거죠? 목적을 알고 있으면

더 도움이 될 텐데요.”

“우리 연구의 정확한 본질은 기밀입니다.”

브레너가 테리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말했다.

비밀을 밝히기 위한 연구.

테리는 그 정도만으로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늠할 수 있었다.

- 《기묘한 이야기: 최초의 의심》 중에서 -





## 인간의 정신세계라는 전쟁터

감각을 차단하는 수조에서 환각 상태로 내면을 깊이 파헤치는 실험부터 뇌에 전기충격을 가하는 실험까지. 실험은 테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었다. 어느 날, 몰래 실험실을 빠져나간 테리는 다른 동의 작은 방에서 어린 여자아이를 발견한다. 다섯 살. 이름은 칼리. 브레너를 ‘아빠’라고 부르는 또 다른 실험대상자였다. 테리와 칼리는 서로 만난 걸 비밀로 하기로 한다. 어쩌서 어린 여자아이가 이 비밀스러운 연구소에 있는 걸까. 칼리는 진짜 브레너 박사의 딸일까. 환각 실험을 하는 연구소에 어린아이가 있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한편 테리처럼 실험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지원자인 엘리스는 환각 상태일 때마다 괴물을 보았고, 또 다른 참여자인 글로리아는 환각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벽시계 바늘이 피를 흘리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겪는다. 이처럼 약물과 환각 작용에 기초한 브레너 박사의 정신 실험은 갈수록 수상쩍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테리는 실험을 거듭할수록 호킨스 연구소의 실험 목적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결국 테리는 함께 실험에 참가하는 동료들과 힘을 합쳐 연구소의 비밀을 밝혀내기로 결심한다. 브레너 역시 테리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그 녀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는 계락을 꾸미는데….

이 지역 사람들은 대체로 보수적이어서 정부에서 환각 실험을 지원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입증해줄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다. 그들은 아직 이 연구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 《기묘한 이야기: 최초의 의심》 중에서 -

소설 후반부는 브레너 박사와 테리 일행이 맞서는 전개로 이어진다. 극의 흐름이 진행될수록 긴장감이 고조된다. 브레너 박사가 숨기고 있는 비밀실험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며, 테리와 친구들은 연구소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까? 입체적인 등장인물들이 인간의 정신세계라는 전쟁터에서 미래를 위한 싸움을 벌이게 되는 내용으로 독자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이 소설은 <기묘한 이야기> 본편의 세계와 절묘하게 맞물린다. 마지막 장을 덮고 나면 왜 제목이 ‘최초의 의심’이어야 했는지 이해될 것이다. ㉠



###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와 소설

넷플릭스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화제작 〈기묘한 이야기〉는 미국 인디애나주 호킨스에 사는 단짝 친구들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사건들을 쫓는 미스터리 스릴러다. 2016년 첫 선을 보인 이 시리즈는 2022년 시즌 4를 공개했고, 현재 팬들의 높은 기대감 속에서 시즌 5가 제작 중이다.

소설 《기묘한 이야기: 최초의 의심》은 오리지널 시리즈보다 앞선 과거의 이야기를 다룬 속편이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반을 배경으로 초능력 소녀 일레븐의 엄마인 테리 아이브스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호킨스 연구소의 비밀을 파헤쳐 나간다. 이 소설은 출간과 동시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시리즈의 팬과 독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또한 작년에는 〈기묘한 이야기〉의 또 하나의 속편인 《기묘한 이야기: 어둠의 날》이 번역 출간돼, 기묘한 세계에 오래 머물고픈 팬들에게 또 하나의 즐거움을 선사했다.

# 함께 나누다

오늘의

도서관

52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56 국내외 도서관 소식

58 내 마음의 문장들  
2023년 열 번째 필사  
강소천 〈눈 내리는 밤〉

59 오늘의 사진관  
따뜻한 겨울,  
니만의 도서관은 어디인가요?



국립중앙도서관

# NEWS

01

## ‘K-문학의 재발견 문학 기행’ 강연회 개최



국립중앙도서관은 열린 마당 실감체험관 개관을 기념하여, 11월 20일(월) 오후 2시 본관 1층 열린 마당에서 ‘K-문학의 재발견 문학 기행’ 강연회를 개최했다. 열린마당 실감체험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세 번째 실감체험관으로 지난 10월 16일(월) 개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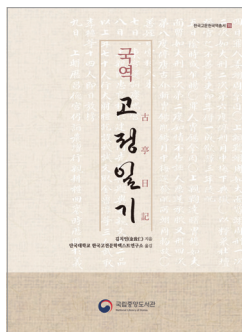
이번 강연회는 한국시가문학해설연구원 이정옥 원장을 초청하여 고전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의 한국 시가 문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 후에는 국·한문 혼용의 유람 기행 가사인 ‘관동별곡’을 현대적인 감각의 일러스트와 디지털 미디어 기술이 만나 새롭게 해석된 미디어 아트를 관람하였다.

‘K-문학의 재발견 문학 기행’ 강연회는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오프라인 100명, 온라인 500명에 한하여 참가를 받았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추첨을 통하여 참가자 20명에게는 2만 원 모바일 문화상품권이 증정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 지식정보서비스과 홍영미 사무관은 “이번 강연회를 통해 새롭게 선보인 실감콘텐츠 관동별곡의 이해를 돕고 문화 향유의 폭을 넓혀, 국립중앙도서관이 국민 품으로 더 다가가는 K-도서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지식정보서비스과** 02-590-0584

02

## 1764~1765년 2년간의 역사자료 《국역 고정일기》 발간



국립중앙도서관은 2023년 한국고문헌 국역총서 제15집으로 영조와 정조 2대에 걸쳐 20년간 재상을 지낸 고정(古亭) 김치인(金致仁, 1716~1790)의 친필 유일본을 번역한 《국역 고정일기》를 발간하였다. 김치인은 형조판서와 이조판서, 우의정과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까지 역임하며 국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제도와 법률 등에 해박하여 국가적인 대의와 제도를 담은 《국조상례보편》, 《명의록》, 《대전통편》 등의 편찬을 주관하였다. 그러나 현재 그의 문집이나 저작들이 전해지고 있지 않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친필본 《고정일기》가 김치인의 삶과 사상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저작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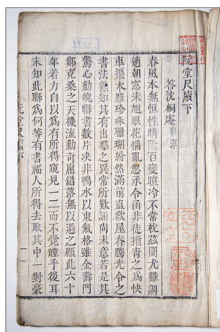
《고정일기》는 1764년과 1765년 2년간에 걸쳐 재상으로서 김치인이 보고 들은 공적, 사적 내용들을 기술한 일기로, 기록되지 않은 날이 총 60일 남짓에 불과할 정도로 다른 어떤 일기보다 빈틈없이 철저하게 기록되어 있다. 일기에 날씨를 기록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지만 《고정일기》의 날씨 기록은 어떤 일기보다도 특별하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비와 눈이 내리거나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는 등의 기본적인 기상 묘사는 물론이고, 강수량의 차이와 눈비의 종류를 세분화했으며 새벽, 아침, 오전, 정오, 오후, 해질녘, 저녁 밤, 깊은 밤 등 시간대까지 잘게 쪼개서 날씨 변화를 면밀하게 기록하였다.

《국역 고정일기》는 ‘한국고문헌종합목록’ 누리집 자료실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앞으로도 도서관 소장 유일본 및 희귀본 중 가치 있는 자료를 적극 발굴하고 국역본을 간행하여 연구자와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 **고문헌과** 02-590-0503

03

## 115년 전통의 한글학회, 사전 편찬 참고용 고문헌 2,630책 기증



애류 권덕규의 소장 도서 《완당척독》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글학회로부터 우리말 사전 참고용으로 수집 보존하던 420종 2,630책을 기증받아 ‘한글학회문고’를 설치하고 11월 13일(월) 오전 11시에 기증식을 개최하였다.

한글학회에서 기증한 고문헌들은 《조선말 큰사전》을 비롯해서 여러 사전 편찬에 참고하기 위해 일제강점기 시기부터 모은 자료들이

다. 이 가운데는 《역과방목》, 《완당척독》 등 일제강점기 국어학자이자 조선어연구회 창립 회원인 애류(崖溜) 권덕규(權惠奎, 1890~1950) 선생을 비롯해서 여러 국어학자들이 기증한 책들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의 탁본 《구락호대왕비》(중국 상해 유정서국, 1917년)와 같은 국내 희귀자료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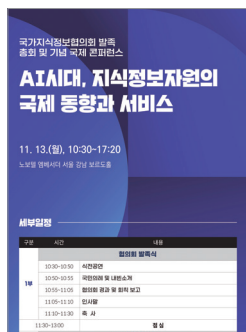
한글학회는 우리말과 글을 연구하고 교육, 보급하여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08년 8월 31일 한헌샘 주시경(1876~1914)이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국어연구학회’라는 이름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학술단체로서 일제강점기에 조선어학회 수난을 겪으면서도 우리 말을 지키고 발전시켜 온 겨레의 학회이다.

한글학회문고 자료는 올해 12월부터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실(본관 5층)에서 신청하면 열람할 수 있다.

🕒 **고문헌과** 02-590-0507

04

## 국가지식정보협의회 발족 총회 및 기념 국제 콘퍼런스 개최



국립중앙도서관은 11월 13일(월) 노보텔 엠베서더(서울시 강남구)에서 ‘국가지식정보협의회 발족 총회 및 기념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협의회 회원기관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97년부터 국회도서관 등의 유관기관들과 국가전자도서관, 정책정보포털 등 총 12개 협력사업<sup>1)</sup>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현재 1만 1,000여 개 기관들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환경변화와 시대적 수요에 부응하여 성사된 국가지식정보협의회 출범은 국립중앙도서관 중심의 참여기관 간 협력증대와 이를 토대로 하는 대국민 지식정보서비스 품질 향상,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지식의 재창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지식정보협의회 발족식 1부는 더 나라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김일환 국립중앙도서관장 직무대리 인사말, 고영은 출판도시문화재단(파주) 이사장의 축사, 회칙 및 경과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2부에서는 ‘AI시대, 지식정보자원의 국제동향과 서비스’라는 주제로 협의회 발족 기념 국제 콘퍼런스가 개최되었다.

🕒 **디지털정보기획과** 02-3483-8821

1) 국가지식정보공유서비스, OAK국가리포지터리, 국가전자도서관, 국가자료종합목록, 협력형 온라인지식정보서비스, 한국고문헌종합목록, 도서관 정보나루, ISNI-KOREA, 코리안메모리, 정책정보포털, 책바다서비스, 책이음서비스



국립중앙도서관

## NEWS

05

최근 3년간 공공도서관  
여행도서 대출 동향 발표

국립중앙도서관이 최근 3년간(2020. 10. 1~2023. 9. 30.) 공공 도서관 여행도서 대출 동향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여행도서 대출 1위는 김영하의 《여행의 이유》

이 책은 삶과 여행에 대한 문학적 사유를 잘 풀어내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최근 3년간 5만 343건이 대출되었다. 김영하의 시칠리아 여행기 《오래 준비해온 대답》이 2위(2만 1,937건), 정세랑의 《지구인만큼 지구를 사랑할 순 없어》가 3위(1만 8,525건)를 기록했다.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여행 문학이 여행도서 대출 상위 20권 중 15권(75%)으로 여행 안내서에 비해(5권, 25%) 강세를 보였다.

## 국내여행에서 해외여행으로, 여행 트렌드의 변화

최근 3년간 여행안내서 대출 상위 50권을 분석한 결과, 여행자들의 관심이 국내에서 해외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2021년과 2022년은 팬데믹의 영향으로 국내 여행도서의 대출이 각 94%(47권), 92%(46권)를 차지하면서 차박 캠핑, 맛집 투어 등 테마가 있는 여행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 2023년에는 해외여행도서의 대출이 66%(33권)로 8%(4권)였던 2022년에 비해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일본 여행안내서가 30%(15권)를 점하며 여행 제한 상황의 완화와 엔저 현상으로 인한 일본여행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위 분석 결과는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도서관 정보나루(data4library.kr)’의 대출데이터 292만 8,237건을 분석한 것으로 빅데이터 분석보고서 《도담: 도서관 빅데이터를 담다》 제 5호에서 볼 수 있다.

🕒 디지털정보기획과 02-590-6230

06

‘2024년 전국 도서관 겨울 독서교실  
(제108회)’ 운영 지원 안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전국 공공도서관과 협력하여 독서진흥 활동 및 창의적 독서문화 확산 기여하고자 ‘2024년 전국 도서관 겨울 독서교실’ 운영을 지원한다. 어린이·청소년들에게 그림책과 관련된 독서문화 프로그램으로 문화 활동, 창작활동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제108회 겨울 독서교실은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개최되며, 도서관을 방문하는 어린이와 청소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2024년 전국 도서관 겨울 독서교실’ 운영 지원을 희망하는 도서관에 한해 11월 14일(화)~11월 26일(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았다. 도서관별 운영계획 결과를 접수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겨울 독서교실을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12월 4일(월)~12월 15일(금)까지 포스터, 독서노트, 배지, 수료증 이미지 등 운영물품을 지원한다. 또한 우수 참가자 1명에게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전국 도서관 독서교실은 1971년부터 시작한 도서관 최장수 독서문화 프로그램으로 2023년 여름 독서교실에 이르기까지 총 107회 개최하였다. 2024년 겨울 독서교실 슬로건 ‘겨울아, 읽자!’로 어린이·청소년들이 책을 ‘즐겁게’ 읽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의미에서 기획되었다.

겨울 독서교실은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운영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청소년들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누리집(www.nlcy.go.kr) ‘공지사항’에서 겨울 독서교실 운영도서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청소년들은 지역의 해당 공공도서관 누리집 등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획협력과 02-3413-4758

07

국립세종도서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국립세종도서관은 개관 10주년을 기념하여 12월 9일(토)부터 12월 12일(화)까지 도서관 1층 로비에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12월 12일(화) 개관 기념일에는 도서관계 주요

인사를 모시고 개관 10주년 축하와 함께, 10년 동안 도서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정책정보 우수 협력 기관과 도서관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 우수 이용자를 격려하는 기념식이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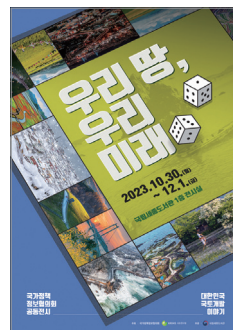
기념식에 이어, 10년 동안 도서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가 중 한 명인 김영하 작가를 모시고 ‘소설을 읽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주제로 결코 평범하지 않은 소설의 세계에 대해 이용자와 함께 생각하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제21회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동화 《긴긴밤》을 음악과 함께 낭독극으로 풀어낸 공연도 선보일 예정이며, 가수 ‘109’와 함께하는 축하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이 밖에 도서관의 수많은 책 속 인물을 표현한 ‘양철인간’ 마임 공연과 ‘도서관 스탬프 투어’ 등 지역 대표 문화공간인 국립세종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국립세종도서관 서비스이용과 044-900-9152

08

국립세종도서관,  
‘우리 땅, 우리 미래’ 기획전시 개최

국립세종도서관은 정책 기획전시 ‘우리 땅, 우리 미래-대한민국 국토개발 이야기’를 10월 30일(월)부터 12월 1일(금)까지 도서관 1층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공동전시는 정책 유관기관들의 협력망인 국가정책정보협의회의 회원기관 간 협력사업으로 국토연구원과 함께 주최하였다.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 국토 정책 50여 년 역사를 조망하고, 정책의 점진적 발전에 따른 우리 국토와 사회의 변화상에 대해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 국토종합계획 발전에 따른 우리 사회의 변화상 조망

본 전시는 1971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토종합계획이 공고된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수립된 국토종합계획에 따른 우리 국토의 변화상을 다채롭게 보여준다. 국토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의 과거와 현재, 도시공원법 제정으로 생긴 광장과 도시공원이 자리 잡은 도시의 모습, 서울과 한강의 어제와 오늘, 인구와 주택 형태 변화 등 국토종합계획이 변화시킨 우리 사회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구현하였다.

## 정책과 삶을 연결하는 전시 구성

전시는 △세종시를 비롯하여 우리 국토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우리 국토 어제와 오늘’, △우리 국토 발전 방향을 제시한 ‘국토종합계획’, △전문가 50인이 전망하는 국토의 미래와 국민이 바라는 국토종합계획을 다룬 ‘아름다운 우리 국토’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어린이 미래 국토’ 그림 공모전 당선작 전시와 ‘내가 만드는 미래도시 체험’ 프로그램 코너를 마련하여 도서관을 방문하는 어린이 관람객이 앞으로 가꾸고 지켜나가야 할 국토의 미래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자료과 044-900-9070





국내 도서관

# NEWS

## 01 2023 도서관정책세미나 개최 안내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도서관 정책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23 도서관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12월 7일(목)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사회혁신의 연결고리 도서관'이다. 사전신청을 받은 150명이 현장 참석하며 참석대상은 중앙부처·시도·시도교육청 도서관 정책담당자, 관중별 도서관 관계자 및 관심 있는 국민으로, 온라인과 동시 병행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중계는 국가도서관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youtube.com/@clip\_kor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2 새로 나온 '발달장애이용 읽기 쉬운 책'을 만나보세요

국립장애인도서관은 11월 20(월)까지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책(15종)' 소장 희망기관을 모집했다. 읽기 쉬운 책은 원본 도서의 내용을 쉬운 어휘와 간결한 문장구조, 새로운 그림을 추가하여 발달장애인이 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다. 작년에 보급한 읽기 쉬운 책이 주로 어린이용 동화책이었다면 이번에 보급할 책은 어린이·청소년·성인 각 연령층을 고려하였으며, 건강, 안전, 인권, 정보활용 등 다양한 주제 분야의 책을 선정하여 교육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https://nld.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3 순천기적의도서관, 20주년 기념 책·책·책 책축제 개최



순천기적의도서관은 개관 20주년을 맞아 11월 10일(금)부터 11일(토)까지 이틀간 책·책·책 책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적의

20년, 앞으로의 20년'이라는 주제의 특별포럼과 기념행사, 그리고 책축제로 운영되었다. 10일 특별포럼에서는 기적의도서관 20년 공로자에 대한 감사패 증정과 '2023 도서관 어린이 서비스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있었다. 11일 버드내공원에서 개최된 책축제는 개막 퍼레이드 '기적의 아이들'을 시작으로 바자회, 공연, 전시, 체험, 마켓 40여 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운영되었다.

## 04 인천시 미추홀도서관, 핀란드 도서관에 책 410권 기증



인천시 미추홀도서관은 핀란드 내 한국어 보급 확산을 위해 한국어 도서 410권을 기증했다고 11월 5일(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핀

란드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핀란드 공공도서관 내 한국어 도서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주핀란드 대한민국 대사관과 함께 추진했다. 이번에 기증하는 410권의 한국어 도서는 핀란드 파실라(Pasila) 중앙도서관 및 오디(Oodi) 도서관 등에 전달돼 수도권 우시마(Uusimaa) 지역 어디에서든 신청하면 빌려볼 수 있도록 비치돼 활용될 예정이다.

국외 도서관

# NEWS

## 01 유네스코, 2025년 세계 책의 수도로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 지정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오드리 아줄리(Audrey Azoulay) 사무총장은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

(Rio de Janeiro)를 2025년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발표했다. 포르투갈어 사용권에서 세계 책의 수도가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오데자네이루는 2025년 4월 23일(수)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로부터 세계 책의 수도가 된다. UNESCO 세계 책의 수도로 지정된 도시들은 해당 연도에 국내외에서 모든 연령대와 집단을 상대로 책과 독서를 홍보하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 02 유네스코, 6개의 혁신적인 프로그램에 2023년 유네스코 국제문해상 시상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는 국제심의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방글라데시, 도미니카공화국, 핀란드,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우간다의 6개 우수 문해력 프로그램을 2023년도 국제문해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시상식은 '전환기 시대의 문해력 증진: 지속가능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기반 구축(Promoting literacy for a world in transition: Building the foundations for sustainable and peaceful societies)'이라는 주제로 9월 8일(금) 프랑스 파리 UNESCO 본부에서 개최된 세계 문해의 날(International Literacy Day) 기념식에서 진행했다.

## 03 영국 친환경도서관주간과 도서관계의 지속가능성 지원 활동

영국에서는 매해 10월 첫째 주 도서관주간(Libraries Week)에 영국 전역에서 도서관이 하는 중요한 역할을 기리는 행사들을 개최한다. 올해의 도서관주간은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춰 친환경도서관주간(10월 2일(월)~8일(일))으로 정하고, 영국 내의 도서관들이 진행하고 있는 탄소중립 활동에 주목했다. 영국 전역의 도서관들과 협력하여 모든 연령대의 도서관 이용자 및 비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도서관에서의 친환경 실천운동'을 진행했다. 또한 친환경도서관주간 인터랙티브 지도를 만들어 영국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혁신적이고 신나는 친환경 행사와 활동들을 효과적으로 안내했다.

## 04 핀란드국립도서관 디지털 컬렉션 서비스, 2,700만 페이지 이상 디지털화

역사 애호가와 연구자들을 위한 핀란드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Finland, NLF)의 디지털 컬렉션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NLF 디지털 컬렉션 서비스가 제공하는 디지털화 자료의 수가 2,700만 페이지를 넘어섰다. NLF 디지털 컬렉션은 이 용자들에게 핀란드에서 발행된 신문과 저널, 잠깐 쓰고 버려지는 자료들 또는 원고나 악보, 지도와 같이 NLF가 디지털화한 기타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2021년 이후 NLF 디지털 컬렉션에서 제공하는 다운로드 도구를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신문과 잡지 및 기타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핀란드국립도서관 디지털 컬렉션의  
디지털화 자료 서비스 바로가기



## 내 마음의 문장들

새하얀 눈꽃이 피어나는 겨울입니다.  
눈 내리는 밤의 정밀감을  
표현한 서정시가 있습니다.  
겨울의 고요한 정경에 동화된  
화자의 마음을 떠올리며 시 한 편,  
천천히 따라 쓰고 음미해보세요.  
2023년 12월 함께 필사해 볼 시는  
강소천 시인의 <눈 내리는 밤>입니다.

말 없이

소리 없이

눈 내리는 밤

누나도 잠이 들고

엄마도 잠이 들고

말 없이

소리 없이

눈 내리는 밤

나는 나하고

이야기하고 싶다

- 강소천 <눈 내리는 밤> 전문 -

## 따뜻한 겨울, 나만의 도서관은 어디인가요?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달입니다.  
남은 연말까지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추억을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책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  
나만의 특별한  
도서관을 소개해주세요.

### 11월호 당첨자 사연을 소개합니다!

01

깊어진 가을, 나만의 도서관은  
( 안전지대 )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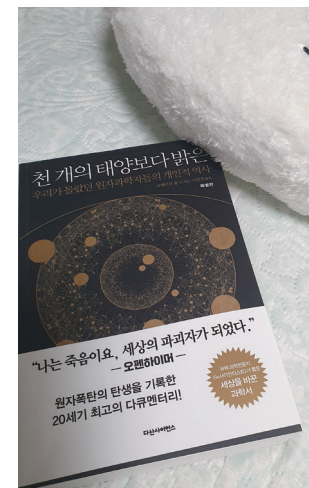


요즘 마음이 많이 힘드네요. 이  
럴 때 나의 안전지대, 도서관에  
서 친구를 만나요. 그 친구는 에  
세이, 소설, 시, 그림책 등 다양  
한 모습으로 저를 기다려줘요.  
그리고 매일 새로운 위로와 평  
온을 선물해줍니다. 오늘은 이  
제야 시인의 시집 《일종의 마  
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큰  
울림을 준 시 한 편을 필사하며  
마음에 새깁니다. “놓아버린 적 없는 햇빛에도 마음이 그을린다. 위로되  
지 않는 여름날 우정처럼”

윤〇정 님

02

깊어진 가을, 나만의 도서관은  
( 내 침대 위 ) 이다.



저는 《천 개의 태양보다 밝은  
우리가 몰랐던 원자과학자들의  
개인적 역사》를 읽었습니다. 영  
화 <오픈하이머>, tvN 예능 <알  
쓸별잡>, 유시민 작가의 <문과  
남자의 과학공부> 이후로 과학  
책을 읽으니 너무너무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저는 평생 감상적  
인 사고를 하며 살아왔는데 ‘이  
성과 논리’를 한 스펀식 제 인생  
에 섞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김〇진 님

따뜻한 겨울, 나만의 도서관은  
( ) 이다.

QR코드 링크로 접속해  
내가 오늘 읽은 책과 짧은 감상평을  
사진과 함께 인증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10분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바로가기

